미국식 생활 양식과 남조선에 미친 그 후과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미국식 생활 양식과 남조선에 미친 그 후과

전 장 석 저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65

차 례

머리'말

조선 민족은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의 인민으로서 서로 돕고 아끼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미풍 량속을 가졌으며 용감하고 근면하며 단결력이 강한 슬기로운 인민이다.

이러한 미풍 량속은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활짝 꽃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해방 후에 나라의 만년 대계를 이룩할 수 있는 자주 자립의 튼튼한 토대가 이룩되였으며 민족 문화와 사람들의 고상한 도덕적 풍모도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인민이 우수한 전통을 이어 받고 있으며 특히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이룩한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마음껏 배우며 일하고 있으며 착취와 억압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 형제들을 하루 속히 구원하며 보다 휘황한 앞날을 위하여 있는 정력과

창조적 지혜를 다 바쳐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하고 있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며 조국 통일과 조국의 륭성 발전에 이바지한 자기의 로력적 헌신성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어려운 일의 앞장에 서며 다른 사람의 불행을 덜기 위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 나서는 것과 같은 미담은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이 창조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종국적으로 없어진 오늘의 로동당 시대에서처럼 인간의 존귀성과 인간 생명에 대하여 배려한 그러한 때는 없었다.

오늘 전체 북반부 인민들은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이 활짝 꽃 피여 그것이 무르익는 지상 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결의에 충만되여 창조와 희망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괴뢰 도당의 책동에 의하여 생사 기로에서 헤매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는 기여든 첫날부터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가 부식되여 슬기로운 우리 인민의 찬란한 문화 전통과 건전한 미풍 량속이 전례 없이 파괴, 유린, 말살 당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에서는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가 조장되고 있으며 사기, 협잡, 패덕, 패륜 행위가 더욱 늘어 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미국 자본가들의 동물적 취미의 충족물로서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며 조선 인민의 아름다운 미풍 량속을 파괴하기 위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 침략 수단의 하나인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과 그것이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생활에 미친 해독적인 후과를 폭로 분쇄하는 것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

1) 미국식 생활 양식이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물질적 수요와 정신적 및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생활과정에서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관습화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풍습, 관념의 총체를 말한다.

그러므로 생활 양식은 인간 생활의 어느 한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물질적, 정신적 및 도덕적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생활 양식은 매개 민족들에 따라 고유한 자기의 특성들을 가진다.

그것은 당시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사회 제도의 본질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지배하며 적대계급으로 분렬된 사회에서는 착취 계급의 생활 양식

과 피착취 근로자들의 생활 양식은 동일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에 기초한 착취 계급의 생활 양식과 도덕 규범이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한 번 형성된 생활 양식은 사회 제도가 바뀌여진 이후에도 비교적 오래 동안 민족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계승된다. 미국식 생활 양식도 바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미국 착취 계급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미국식 생활 양식은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인 만큼 다른 나라 자본가들의 생활 양식과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리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주의, 강탈과 살인, 사기와 협잡, 색정과 부화 방탕, 야수성과 인간 증오, 몽매주의 등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적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를 보기로 하자.

첫째로, 그것은 미국 자본가 계급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미국식 생활 양식이 개인 리기주의와 황금 만능에 기초하고 있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그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최대한의 리윤 획득이 목적으로 되여 있는 만큼 략탈과 착취, 강탈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 자본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리윤의 무제한한 증대와 리윤 원천의 완전한 독점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돈'벌이만 되는 일이라면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뛰여 든다.

자본가들이 이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벌이가 유일한 목적으로 되여 있는 미국 독점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이 제도의 산물인 미국 자본 가들의 생활 양식도 달리는 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황금이 만능이며 치부는 자본가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최고 리상으로 되여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며 지식을 배우며, 교제를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 등 그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모두 돈'벌이를 위한 것이다.

사실 상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무제한한 치부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국 내의 수천만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세계 수억만 인민들로부터 무진장한 재부를 략탈하고 있다.

미국에서 국가 기구는 본질에 있어서 백만장자들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미국의 력대 집권자들은 모두 백만 장자들이였거나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사환'군들이였다.

미국의 전 대통령 케네디는 《보스톤 재단》의 대금융 자본가였으며, 현 국무 장관 러스크는 《록펠러

기금》의 총재였으며, 현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포드 모터 캄파니 군수 콘체른》의 총재였으며, 현 대통령 죤슨 역시 백만 장자의 두목이며 군수업자의 주구이다.

미국에서 케네디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 자리까지 차지하게 된 죤슨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무서운 정치 도박군이다.

그는 딸라와 주먹을 결합한 회유 기만과 협잡,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오늘 그 자리에까지 게바라 올랐다. 특히 그는 조선 전쟁 당시 미국 국방 조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조선 인민에 대한 도살과 학살 정책의 조작에 참가하였으며 미국 군수 업자들의 충실한 주구가 되여 수 많은 딸라를 긁어 모았다. 그는 1962년과 1963년에 걸쳐 서부 독일과 남부 월남을 싸다니면서 전쟁 선동에 광분하였는바 그의 이러한 행동은 초상 난 집에서 춤추는 살인귀와 같았다.

미국의 3 대 재벌의 하나인 록펠러는 자기의 사환'군들을 통하여 정부를 조종하고 국가 정책과 그 집행을 장악하기 위하여 국무 장관 이외에 중앙 정보 국장, 재무 장관을 비롯한 기타 주요한 자리에 자기의 심복들을 들여 앉히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 받기 위해서만도 91만 2,500 딸라를 썼는데 이 금액은 미국에서 기능 로동자 600여 명이 한 달 동안 죽도록 일하여도 벌기 어려운 엄청난

돈이다. 해리만은 선거 운동비로 9,000 딸라를《선사》한 대'가로 극동 관계 국무 차관보의 직위에 올라 갈 수 있었으며 데위드는 3,000 딸라를《선사》한《은혜》로 영국 주재 미국 대사의 직위를 얻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딸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맑스가《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죠아 국가에 대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가 권력도 전체 부르죠아지의 공동 사무를 처리하는 위원회에 불과한 것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공'적 기관들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강도, 도박 같은 범죄도 기업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기업에서 악명 높은 것은 깽단이다. 한 때 깽단의 두목이였던 카포네는 살인, 강탈, 밀수 등의 방법으로 수억 딸라를 획득하여 미국에서 가장《성공한 사람》의 하나로 되였다.

보통 사람은 카포네라면 천하에 흉악 무도한 악한의 대명사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살인 장군은 자기는 미국 과실 회사와 제당업자들을 위하여 꾸바, 남미 등을 유린했고 석유 회사를 위하여 중근동의 여러 나라들을 략탈하는 등 5 개 대양을 싸다녔는데 카포네는 미국의 5 대 도시만 략탈하였으니 그가 자기보다는 더 량심적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미국에서 군대라는 것도 결국 백만 장자의 략탈을 보장하기 위한 공개된 깽단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 자본가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지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리용하고 있다.

미국의 한 작가는 《미국식 사망 방식》이라는 표제의 글에서 《미국은 돈이 있어야 죽을 수도 있는 사회》라고 하면서 시체를 리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자본가들의 악착한 롱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실로 마음 놓고 죽을 수도 없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에서 개인 리기주의가 어느 정도에까지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의 한 학자가 미국에서 당한 일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는 말하기를 《서부 워싱톤에 있는 대학에서 당한 일이다. 내 연구실 옆 방에 있는 티베트어 교수의 부인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녀 비서(일본인)의 통보를 받았다. 내가 인사를 가려고 서둘러 연구실을 나서자 녀 비서는 〈인사 가시면 안 됩니다〉고 막는다. 그 리유는 〈모두들 인사를 가면 그 분의 페가 될 것이 아닌가, 당사자가 직접 소식을 알리지 않는 한 조상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개인 리기주의가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깨달았다》(《사상계》, 1963년 9 호)고 하였다.

이렇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딸라 때문에 이웃사람의 죽음에 대한 친절한 조상(弔喪)까지도 거절당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결혼을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결혼한 남자가 제일 먼저 관심하는 것은 적은 돈으로 처를 걸어서 미리 생명 보험에 들어 두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조는 미국 사람들이 결혼을 일종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서 자기 처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 심리가 머리에 지배하고 있는 데 있다.

보험금을 탐내서 처를 죽이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야 어떻게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예로부터 부부는 서로 화목하며 부모는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극진하게 봉양하는 것을 응당한 도리로 알고 있다.

그러나 《딸라가 전능》한 신앙의 대상으로 되여 있는 미국에서는 혈육의 정도, 의리도, 량심도 돈을 위해서는 서슴 없이 배반하고 있다.

미국의 미네소다주 어느 한 자그마한 거리에 살고 있던 변호사 톰슨이라는 자는 네 명의 자녀까지 있는데 자기 처가 가지고 있는 100만 딸라의 보험금과 귀속 재산이 탐나서 살인을 전문으로 하는 살인 청부업자에게 3,000 딸라나 주면서 죽이게 하였다.

이것은 조국이나 애국심, 부모 처자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딸라가 더 귀중하기 때문이다.

남조선의 한 학자는 이러한 미국인들의 비극적인 가정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동양의 생활 양식에 젖은 사람에겐 이 개

인주의가 슬픈 일면을 만들고 나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 첫째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우리와는 다르다. 부모가 성년된 자식을 끝까지 념려하고 돌보아 주려 하지 않으며 자식도 결혼만 하면 부모 봉양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어머니와 안해가 싸울 때에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고 물으니 〈어머니가 성년된 우리 생활에 간섭할 권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한다.

〈부모가 늙었을 때 돈을 보낼테냐〉에 대해선 〈보낼 수는 있지만 보낼 의무는 없다.〉라고 나온다.

이러한 개인주의 생활 양식으로 인하여 로인들의 신세란 처량하게 보인다. 찬 바람이 불 무렵 공원에가 보면 거기엔 외로운 로인들의 소일터가 되여 의자에 느런히 앉았다…늙어서 자식과는 떨어져 손자의 얼굴도 못 보고 고적하게 사는 그들이 마음 아파보인다》(《사상계》, 1963년 9월 호).

이것은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것, 귀중한 것을 《현금 가치》로 환산하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을 처음 찾아 간 남조선의 한 녀학생은 아버지에게 보낸 자기 편지에서 《미국 사람들은 개인 리기주의가 많아서 자기 이외에는 남의 일에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벌면 그 만큼 잘 살 수 있으며 그 돈은 남을 위하여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남조선을 말

함=편집자 주)에서 미국이라면 모두 가고 싶어 하고 동경하는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녀원》, 1962년 5호)라고 한 것이 어찌 이 한 녀학생의 심정만이겠는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 자본가들은 개인의 향락을 위한 돈'벌이를 생존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수단이든지 가리지 않는다.

둘째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적 내용은 모험적인 야수성과 인간 증오,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성 등이다.

미국 양키들은 《백인종만이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며 세계를 지배할 능력 있는 민족》이라고 자처하면서 유색 민족은 《렬등》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자본가의 조상은 서구라파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있던 시기인 15세기 말 콜롬브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서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 돈'벌이를 하기 위하여 보따리를 걸머지고 모여 든 해적들이였다.

그들은 옛날부터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적으로 살아 온 수 백만의 원주민(인디안)을 근대 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그들은 원주민(인디안)을 인간 도살 방법의 실

협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들에 대한 학살을 산 짐승 사냥과 아무런 차이도 없이 진행하였다.

미국 자본가들의 야수적 본성은 미국에서 250년 간이나 노예 제도를 존속시킨 데서와 원주민(인디안)을 소멸하기 위하여 일련의 악법까지 조작해 낸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703년 식민지 맛싸추제스 립법 회의는 원주민(인디안)의 머리 가죽 한 장과 원주민 포로 한 사람에 대하여 각각 영국 돈으로 40 파운드의 상금을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고 1720년에는 머리 가죽 한 장의 상금을 100 파운드로까지 인상하였다.

지어 양키들은 1812년 알곤킨인 정복에서 수다한 원주민(인디안)들을 살륙하고 그 머리 가죽을 벗겨 당국에 바쳤을 뿐 아니라 그들의 추장이였던 테꿈세의 가죽을 벗겨 면도칼을 가는 혁띠를 만들어 《기념품》으로 나누어 가지는 잔인한 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리 하여 아메리카 대륙 발견 당시 약 200만 명에 달하였던 원주민(인디안)은 34만 3,000명(1950년 현재)으로까지 감소되였으며 그들은 오늘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깊은 산 속과 사막 지대에 추방 강금되여 전멸 상태에 처하여 있다.

미국 식인종들의 흑인에 대한 만행은 인디안 (원주민)도 살 방법을 릉가하였다.

노예 상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흑인을 노예로 끌어 가기 위하여 무장을 갖춘 《흑인 사냥대》까지

조직하여 문'자 그 대로 사람 사냥을 하였는데 이렇게 랍치한 흑인을 가축과 다름 없이 이마에 쇠도장을 찍고 쇠사슬로 묶어서 짐짝 가리듯이 노예선에 처넣어 미국으로 실어 갔다.

그들은 수송 도중에 식량과 물이 부족하거나 배에 위험이 닥쳐 올 때에는 서슴지 않고 흑인들을 바다에 처넣군 하였다. 하이티로부터 비하마제도에 다니는 배들의 도중에서 자주 만나는 이러한 시체를 따라 그 행방을 정할 수 있었으므로 라침판이 없이도 항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흑인들을 바다에 처넣었겠는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하여 흑인 학자 듀보아는 미국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 아메리카로 끌려 갔거나 수송 도중에 살해된 흑인은 무려 6,000만 명을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아메리카에 끌려 간 흑인들은 가축과 같이 노예 시장에서 매매되였는데 그들은 자기 가족과 격리되여 우리 안에 억류되여 있었으며 노예주들의 농장과 광산에서 .매일 15~18 시간의 가혹한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였다.

미국 노예 상인들은 1904년 봄에 1,100 명의 우리 동포도 멕시코에 실어 갔는데 그들은 농장주들의 채찍 밑에서 우마와 같이 혹사 당하였으며 최하층의 노예로 이리저리 팔려 다녔다. 당시의 《황성 신문》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 끌려 간 조선 사람

들은 《값싼 돼지 한 마리 값보다도 오히려 10 전이나 눅은 값으로 팔렸다》.

바로 오늘도 남조선에서 미제는 박 정희 매국 도당과 공모하여 살'길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 수 많은 남조선 인민들을 《이민》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밑에 브라질과 서독을 비롯한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가들에게 직접 팔아 넘기고 있다.

오늘 미국에는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흑인들이 살고 있으나 아직도 적지 않은 주들에서 그들은 격리되여 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이 다만 백인종들에게 무조건 복종할 의무만이 지어져 있다.

그리 하여 흑인들은 극장, 학교, 식당, 교회, 백화점, 빠스 등에서 백인들과 동석하였다는 《죄》로 살해되거나 집단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지어는 뛰여난 재능을 가졌고 주요한 직무에서 일을 하더라도 백인과 섞일 수 없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사형(私刑)은 공인되여 있으며 《쿠 클룩스 클란》, 《흑병단》과 같은 살인 테로 단체들은 독점 자본가들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유색 인종의 탄압과 학살의 앞잡이로 복무하고 있다.

오늘 미국 인종주의자들은 생존과 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는 흑인에 대하여 전례 없는 테로와 학살을 감행하고 있다.

1963년에 버밍감을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일어 난 흑인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미제는 중무장을 한 경찰과 군대까지 동원하여 탄압하였으며 흑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오늘 우리 나라 남반부에서도 미국 양키들에 의하여 서슴없이 감행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 양키들은 강점 첫날부터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으며 특히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만행은 오늘 남조선 도처에서 미군 양키들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는데 동두천 녀인 삭발 사건, 파주 집단 수색 사건, 군산, 마산, 서울 후암동 총격 사건들이 이를 잘 말하여 주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등이다. 그것은 《가장 문명한 나라》로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 1 위의 범죄국이라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그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0～1960년 간에 미국에서 일어 난 범죄 건수는 2 배로 증가되였으며 1960년 한 해 동안에만도 평균 58 분만에 1 건의 살인, 매 39 초만에 1 건의 절도, 매 6 분만에 1 건의 강도, 매 34 분만에 1 건의 강간, 매 34 분만에 1 건의 테로, 매 2 분만에 1 건의 자동차 도난 사건이 발생되였다.

미국에서는 보통 상식으로써는 풀리지 않는 《초범죄(超犯罪)》가 특히 성행하며 깽을 비롯한 강력범과 완전 지능범이 백주에도 횡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범죄가 더욱 악질화되여 가고 있음을 실증하여 준다.

오늘 미국에서는 고등 교육을 받은 백만 장자의 자녀들이 다만 강력한 자극을 탐내서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제 살인 행동으로써 그 계획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과 같은 렵기가 류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악독한 후과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바 최근 10 년 간에만 하여도 청년들이 체포된 건수는 2 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1962년 한 해 동안에만도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감옥살이를 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아동의 약 20%가 경찰과 사법 기관의 단속을 받은 것으로 된다.

그 외에도 매년 11만 이상의 자동차 절도 사건이 있는데 그 중 약 13%가 15 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며 강도, 절도범의 절반은 21 세 미만이다.

이상과 같이 오늘 미국에서는 물론 미 제국주의자들의 발이 가 닿는 모든 곳에서 야수성과 인간 증오,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등이 횡행하고 있다.

세째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다른 한 측면은 부화 방탕한 개인 향락과 그 과

정에서 조장된 색정주의와 엽기가 극도에까지 도달한 점이다.

모든 생활에서 개인 리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수 백만 근로자들을 희생시켜 긁어 모은 돈이 개인 향락을 위한 미 독점 자본가들이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적 기초로 되고 있으며 부화 방탕한 생활에 그 돈을 탕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로 찬양을 받고 있다.

미국 억만 장자들이 개인 향락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탕진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이 쓰고 사는 집 하나만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일상 생활에 편리하고 쓸모 있게 짓는 것이 아니라 랑비와 사치를 전제로 하여 짓고 있다.

미국 3 대 재벌의 하나인 록펠러는 자기 집 주위에 75 개 이상의 건물을 지어 놓고 그 후면에는 그가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한 골프 전용의 철도까지 부설하였다. 이 집 정원 관리를 위하여 1,000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용되여 있으며 그의 별장 하나 관리하는 데만 하여도 무려 350여 명이나 고용되여 착취 당하고 있다.

듀폰 재벌은 화려한 주택과 24 개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격은 미국 전체 학교 건설비의 10 분의 1에 해당된다.

미국의 억만 장자들은 이러한 집에서 매일과 같이

초대회, 무도회, 오찬회, 만찬회, 오후의 다과회 등을 벌려 놓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세기적인 향락을 추구하는 추잡하고 부화 방탕한 놀음이 벌어지고 있다.

메론, 듀폰 재벌은 각기 자기 딸을 《사교계》에 소개하는 무도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탕진한 비용만 하여도 수 백만 딸라에 달하였다.

부화 방탕한 생활을 고안해 내는 녀배우들은 머리를 치장하는 데만도 1 년에 2만 딸라를 소비하고 있으며 루이스라는 배우는 4만 딸라씩 하는 양복을 두 번 이상 입지 않으며 한 번 리발 료금을 800 딸라나 쓴다.

이들은 돈 쓰는 것 그 자체를 추악한 도락으로 삼고 있다.

돈을 쓰는 것을 도락으로 삼고 있는 미국 자본가들의 악취미는 지어 개나 원숭이 같은 동물에 막대한 돈을 들여 온갖 사치를 다 부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에서 《귀부인》들은 책상 우에서 쥐를 자래우며 목욕탕에서 악어를 키우며 침대에서 원숭이를 재우는 것을 큰 도락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미국에서 《귀부인》의 《동반자》로 《인간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는 동물만 하여도 무려 30여만 마리나 된다.

이 악취미의 소유자들은 개에까지 계절에 따라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있으며 리발을 시켜 호화스러운 침대에서 재운다. 그들은 개의 목에 보석 목걸개를

걸어 주고 매주 정상적으로 열리는 《동물 무도회》에 데리고 다닌다. 개가 감기에 걸리면 개 전문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개 병문안차로 개 병원에 찾아 간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데 탕진하는 비용만 해도 해마다 3,000만 딸라 이상에 달하고 있다. 3,000만 딸라—이것은 미국에서 수 천명의 로동자가 1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미국 자본가들이 이와 같이 개인 향락을 위하여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의 착취의 희생물로 되여 있는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은 기아와 빈궁, 질병 속에서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최저한의 육체적 건강과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입으로 살고 있으며》(해링톤, 《미국에서의 빈궁》) 600만 명을 넘는 실업자가 항시적으로 살' 길을 찾아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미국 통계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전체 주택의 4분의 1 이상이 마분지와 널판자로 지은 것들이며 미국 세대 수의 66%가 최저 생활비의 절반도 못 되는 생계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미국 근로자들이 처한 비참한 생활 형편을 목격하였던 고리끼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곡식 자루 마

냥 사람들이 꽉 들어찬 그 길'거리의 보도 옆에 놓여 있는 오물통에서 아이들이 코를 들 수 없이 악취가 풍기며 곰팡이가 낀 썩은 야채를 뒤져 내여 그 대로 먹는다.

그들이 썩어진 빵조각이라도 발견하면 그것은 그들 사이에 격렬한 반목을 일으킨다. 그것을 집어 삼키려는 욕망에 사로 잡혀 그들은 강아지 마냥 싸운다. 그들은 욕심 궂은 비둘기와도 같이 보도를 뒤덮는다. 밤 한 시나 두 시 또는 그보다도 늦게까지 그들은 그냥 진창 속을 파 헤치고 있다. 그들은 황색 마귀의 부유한 노예주들의 탐욕에 대한 산 힐난이며 빈궁의 애처로운 미생물들이다》(고리끼, 《아메리카에 대하여》, 21 페지).

억만 장자 록펠러가 자기 아이들에게 50만 딸라의 장난'감을 만들어 주고 있을 때에 미국의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 하고 저주로운 미국 사회를 원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활고로 인하여 매년 80만 명의 자살 기도자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1962년에만도 12만 명의 아동들이 루빈(생활고로 집단 자살한 녀인)의 자녀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미국의 수천만 근로자들은 살아 갈 길이 없어 사랑하는 자식들을 집과 바꾸거나 파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부자들에게는 《천당》이지만 인민에게는 지옥이다.

독점 자본가들은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상품의 소비와 랑비를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랑비와 향락을 고취하여 근로자들을 부화 타락에로 이끌어 가고 있으며 미국 청년들을 온갖 범죄와 패덕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고 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청년들의 생활의 한 측면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이 아침에는 교회당에 가며 저녁에는 무대 우에서 배우가 라체로 춤을 추는 발라이테, 초회극적 현상을 구경하려 간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 양식에 물젖은 미국 청년들이 어찌 라체 발라이테나 초회극적 현상의 구경에만 그치겠는가? 그들이 쏘나 캬바레에서 매춘부의 꽁무니를 따라 다니며 매음굴로 출입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인의 부화한 생활에 대하여 미국의 반동적인 학자 킨제까지도 《미국의 기혼 녀성 4 명 가운데 1 명은 간통을 범했고 미국 녀성 10 명 가운데 1 명은 결혼 전에 임신하며 녀자의 85%, 남자의 95%가 그들이 범한 부화한 생활 때문에 일회~수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에서는 《계약 결혼》, 《시험 결혼》이 류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성적인 향락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동서 생활을 하기로 계약하고 얼마간 생활하다 헤여지는 미국인들의 극도로 부화한 결혼 생활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리 하여 미국은 세계에서 리혼이 가장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되였다. 그것은 최근 50 년 간에 미국에서 세대 수가 2.7 배로 장성한 데 비하여 리혼은 7 배로 격증하였다는 사실이 실증하여 준다.

미국 백만 장자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결혼과 가정은 일시적인 향락의 수단이며 황금을 긁어 모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돈'벌이를 위하여 한 해에도 몇 번씩 결혼하고 리혼하는 현상들이 속출되고 있다.

문'자 그 대로 파국에 직면한 미국에서 부부의 순결성과 참된 애정, 어버이와 자식들 간의 의리와 같은 건전한 풍모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인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의 미국 가정은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통 식사를 제공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런치를 내는 간이 식당이 붙어 있는 하숙집과 같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는 미국의 청소년들은 날 때부터 추잡성이 골수에 스며 들어 성적으로 기형적인 조숙 상태에 있으므로 부모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순진하게 기르려고 하여도 너무나 많은 유혹이 그들을 둘러 싸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였다.

그러므로 미국의 선량한 한 부모는 《만일 청년들이 우리 나라의 장래라고 한다 하면 아메리카의 전도는

암담 그것 뿐이다.》(너어링, 《오늘의 아메리카》, 107 페지) 라고 개탄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에서는 지'적 활동이나 개성의 창작적 지혜, 자주적 사고를 요하는 고상한 사상이나 예술적 활동은 거의 묵살되고 그 대신 저속한 취미로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색정적이며 추잡한 문화만이 범람하고 있다.

양키식 문화—바로 이것은 미국식 생활 양식 주입에서 중요한 작용을 놀고 있다. 미국에 형성된 양키식 문화는 물론 미국 자본가들의 략탈과 착취를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문화이며 랑비와 향락을 자극하는 가운데서 형성된 부패 타락한 문화이다. 미국 독점 자본에 통제되고 있는 신문, 라지오, 텔레비죤, 음악, 영화 등은 미국 인민들에게 야수성을 배양하며 랑비와 찰나적인 향락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패덕적이며 기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널리 전파되고 있는 초현실주의, 충동주의, 모더니즘, 추상파 등 현대 부르죠아 미학의 각종 류파들은 영화, 소설, 회화, 음악을 창작함에 있어서도 색정과 렵기를 대중 속에 주입시키기 위하여 추잡한 색정 세계에서 광태를 부리거나 살인을 도락으로 삼는 등의 양키들의 동물적인 생활을 주제로 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주일 간의 미국 텔레비죤 방송 어린

이 시간에는 무려 32 건의 살인 사건, 21 명이 살해 당한 36 건의 경찰과 깽 간의 맞불질, 5 건의 자살, 3 건의 교살 등을 포함하여 76 건의 살인 장면이 방송되였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러한 텔레비존 방송을 매일 평균 6 시간씩 들여다 보고 있으니 이러한 자극이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어떤 후과를 미칠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러한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자국의 근로자들에게는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부식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일체 선전, 선동, 보도 수단들을 장악 통제하고 있다. 미제가 약소 국가들에 강매하여 널리 상연케 하고 있는 《라체 전쟁》,《아이 러브 유 유 러브 미》, 《화가와 녀인》, 《칸츄리》와 같은 영화들에서는 탕녀의 라체를 미의 극치로 찬양하며 《깽》의 살인과 폭행을 《영웅》으로 례찬하고 있다. 《화가와 녀인》이라는 영화는 벌거벗은 녀인들의 란무를 화가가 그림에 옮겨 놓는 것이 그 내용의 전부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색정적인 《쟈즈》 음악이 범람하고 있으며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트위스트》, 《타무레》 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한 춤판에 《신사 숙녀》들이 어떻게나 많이 모여 드는지 미국 뉴욕시 뒤'골목의 한 술'집에서는 9 명의 경관이 밀려 드는 춤'군들을 정리하는 데 땀을 뺄 지경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퇴폐적인 생활 양식이 미국인들의

모든 생활에 부식된 결과 오늘 미국에서는 수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색정, 안일을 찾아 헤매면서 몸서리 치는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 들어 가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이러한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온갖 기만적인 선전으로 미화 분식하고 있으며 저들의 생활 양식을 식민지 나라들에 부식시키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2) 미국식 생활 양식의 사회 력사적 배경과 사상 리론적 안받침

ㄱ. 미국식 생활 양식의 사회 력사적 배경

미국 착취 계급의 생활 양식으로서의 미국식 생활 양식은 자국 내 근로자들은 물론 타국 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략탈과 착취, 탄압과 학살 그리고 침략 전쟁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미국 독점 자본주의 제도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력사 발전 과정을 떠나서는 리해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그 사회 력사적 배경을 다음에 보기로 하자.

첫째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주요한 내용의 하나인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주의는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구체적인 사회 력사적 환경과

조건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을 가리켜 승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리유 없는 말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미제가 승냥이의 본성을 가장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맑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화폐가 모든 권력 중의 권력》으로 되고 있는 미국에서 한 줌도 못 되는 억만 장자들은 모두다 인민의 고혈로 살찐 흡혈귀들이며 철면피한 강도 집단이다. 그들은 《한 푼의 딸라를 위해서도 무자비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오직 자신의 더 많은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라고 떠벌이면서 딸라를 긁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이와 같은 억만 장자들의 리윤 추구욕은 미제의 대외 침략 전쟁 정책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바 그것은 야수적이며 략탈적인 침략 전쟁 과정에서 더욱더 증대되여 가고 있다.

또한 그것은 제 1 차 대전과 제 2 차 대전이 미국 독점 자본가들을 전례 없이 살 찌게 한 사정과도 관련된다.

전쟁은 문'자 그 대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황금의 《소나기》를 퍼부었다. 결과 제 1 차 대전 전까지만 하여도 구라파의 채무국이였던 미국은 대전 후 도리여 거대한 채권국으로 되였다.

레닌은 미국 로동자들에게 보낸 자기의 편지에

서 제 1 차 대전의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4 년 간의 전쟁은 그 결과로써 자본주의 일반적 법칙을 보여 주었다.…남보다 부유하고 남보다 강한 자는 남보다 많이 리득을 보며 많이 략탈하게 되며, 남보다 약한 자는 여지 없이 남에게 략탈 당하고 유린 당하며 억압 당하고 교살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미국 억만 장자들은 두말할 것 없이…누구보다도 많이 리득을 보았다…그 한 딸라 한 딸라에는…1,000만 명의 전사자와 2,000만 명의 불구자가 흘린 피바다에서 흘러 내린 피의 흔적이 있다》(레닌 전집, 28 권, 57~59 페지).

이와 같이 황금의 획득과 리윤 추구를 위한 미제의 력사는 침략과 전쟁의 력사이며 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력사이다.

그러면 미 제국주의의 조상들이 걸어 온 피 묻은 흔적을 돌이켜 보기로 하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민족은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된 이후에 이동하여 간 서반아와 영국의 해적들을 비롯한 식민지 략탈자들의 후손들이다.

미국 억만 장자들의 조상인 영국 부르죠아지들이 《전능한 황금》의 획득을 위하여 얼마나 악랄한 만행을 감행하였는가 하는 것은 15~16 세기 영국에서 있은 《토지 울치기》의 내막을 보더라도 능히 알 수 있다.

서구라파에서 자본주의가 발생 발전하던 15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에서는 《자본의 시초 축적》방법의 하나인 《토지 울치기》가 진행되였는데 당시 돈'벌이에 눈이 뒤집힌 영국 통치배들은 양털 장사를 위하여 농민들의 옥토를 울타리로 둘러 막고 거기에서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은 후 양을 길렀다.

그리 하여 수천 수만의 영국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여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품고 길'가에서 방랑하게 되였는데 그들은 방랑 걸식한다는 리유로 다시 감옥에 갇히거나 교수대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렇게 자국내 농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수탈에서 밑천을 마련한 영국 통치자들은 이에 토대해서 그 후 대규모적인 해적 행위와 식민지 략탈의 길에 들어 섰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라파 해적 상인들에 의하여 16세기부터 노예 무역이 대성황을 이루게 되였는데 노예 무역은 가장 많은 리득을 가져다 주는 기업으로까지 되였다. 그것은 노예 상인 발디모어가 노예 무역선 《비너스》 건조에 3만 딸라의 비용을 들여 첫 노예 무역에서 20만 딸라의 리득을 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능히 집작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구라파 백인들 특히 영국 부르죠아지들 중에서도 가장 모험적이고 투기적이며 문화 수준이 극히 낮은 야만인들에 의하여 미국식 생활 양

식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주의가 형성 발전되였다.

사실 《일확 천금》의 꿈을 지니고 험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에로 진출한 서구라파의 여러 나라 해적 모험가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광산과 농장에서 어떤 수단이든지 가리지 않았다.

미국의 비옥한 토지와 무진장한 자연 부원은 미국 부르죠아지들의 무제한한 략탈적인 치부욕을 자극하였다. 특히 칼리포르니아에서의 금광의 발견은 그들 앞에 《서부 개척》이라는 일대 도박장을 벌려 놓게 하였으며 《서부 개척》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물려 받은 투기적인 황금 만능주의를 일층 조장하였다.

모험적인 미국의 해상 자본가들의 황금 획득 방법은 해적적 략탈 행위와 노예 무역이였다.

당시 미국의 해적선들은 황금을 략탈하기 위하여 카리브해는 물론 멀리 인도양에까지 진출하여 해적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아프리카 대륙에 침입하여 랍치한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 먹었다.

이와 병행하여 될 수만 있으면 빨리 큰 리윤을 획득하려는 미국 농장주들은 앞을 다투어 흑인 노예들을 렴가로 사 들였다.

이렇게 노예 상인들에 의하여 끌려 간 노예들은 농장과 광산에서 가장 혹심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그 뿐 아니라 독점 자본가들은 식민지 략탈

전쟁을 자본 축적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독립 전쟁 후 1세기 동안에만도 백 수십 차의 침략 전쟁과 8,900여 회의 전투를 감행하였는바 그 때마다 광활한 령토와 막대한 부원을 강탈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 억만 장자들은 오직 략탈과 전쟁으로써만 치부하는 흡혈귀이다. 그들은 제 1 차 세계 대전 년간에 세금을 제외하고도 2배 이상(203%)의 리윤을 짜 냈으며 제 2 차 대전에서 미제는 새 시장과 새로운 원료 원천지를 획득하였으며 570억 딸라를 략탈하였다.

1950년 6월 조선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경제의 군사화를 촉진시켜 공황으로 병든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을 뿐 아니라 전쟁 상인들에게 막대한 리윤을 보장하여 주었는바 1950년 3.4 분기에 벌써 미국 독점체들의 리익금은 년간 리익금 총액인 240억 딸라에 달하였다.

그리 하여 오늘 미국 총 인구의 1%도 못 되는 독점 자본가들이 미국 총 재산의 28%에 해당하는 재부와 주권 배당금 총액의 50%를 독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3대 재벌의 하나인 록펠러 재벌은 국내외에 826억 딸라에 해당하는 자본을 가지고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등 광활한 지역에 착취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자들은 황금을 위해서는 어떤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철저한 개인 리기주의자들이였으며 《첫째도 황금, 둘째도 황금, 세째도 황금》주의자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 력사적 환경과 조건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적 내용인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주의가 형성되게 되였다.

둘째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다른 내용의 하나인 야만성과 인간 증오, 살인과 강탈도 미국 자본주의 력사 발전의 전 행정을 통하여 형성 발전되였다.

16 세기 미국 노예 상인들과 농장주들의 노예 무역에 의하여 끌려 간 노예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농장들과 광산들에서 가장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으며 혹사되였다.

그 당시의 노예들의 상태에 대하여 엥겔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열대 지방의 노예는 6 년 이상 로동해내지 못 하였는데 이것은 노예들이 미국 야수들에 의하여 얼마나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혹사되였는가를 잘 실증하여 준다.

에프. 데. 아제베로는 《브라질 문화》(1950년)라는 자기 글에서 《7 년 간의 힘에 겨운 로동을 하고 그 후에 노예들은 본질 상 늙은 황소보다도 더 소용없는 것으로 되여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썩은 고기처럼 노예촌에 내버린다.》고 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이래 미국 자본가들은 원주민(인디안)에 대해서도 이와 못지 않게 야수적으로 대하였다.

아프리카에서의 흑인 사냥과 마찬가지로 원주민(인디안)에 대한 사냥은 미국 자본가들의 한 개의 습성으로 되여 있었으며 산'짐승 사냥과도 같이 《사냥》하였다. 그야 말로 이것은 미국 자본가들의 돈'벌이의 수단과 방법인 동시에 그들의 생활 리념이기도 하였다.

미국 자본가들의 야수적 본성은 원주민(인디안)을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일련의 악법까지 조작한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원주민(인디안)에 대한 이러한 야수성과 잔인성은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대외 침략에서도 그 대로 표현되고 있다.

수 많은 노예의 획득을 치부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국 식민주의자들은 《수렵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 사냥을 하였으며 지어 비률빈에서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극소수 종족인 600여 명의 모르 종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몰살시키고 1,000만의 비률빈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미국 식민주의자들이 《자본의 시초 축적》 단계에서 원주민(인디안)과 흑인들에 대해서 감행한 기만, 강탈, 추방, 학살 등의 만행은 미국 자본주의 발전 력사에 야수성과 잔인성의 가장 수치스

려운 피의 흔적을 남겨 놓았다.

미국은 원래 인류의 발생지가 아니였다. 미국 주민은 모두 각이한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로 구성되여 있다.

구라파 식민주의자들이 이 곳에 나타났을 때 원주민이였던 인디안들은 원시 상태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시 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발전 수준이 각이한 여러 인종과 민족들이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한 곳에서 살게 된 조건 하에서 그들 사이에는 문화와 풍습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은 없었고 다만 당면한 리해의 공통성에 따라 행동을 같이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라는 도가니 속에서《미국적》이라는 하나의 공통한 생활 양식을 만들어 그것의 지배를 확립하는 과정은 각이한 인종과 민족들의 문화 전통과 생활 양식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 과정이기도 하였다.

아메리카에서 《미국적》이라는 락인이 찍힌 생활 양식이 그 륜곽을 뚜렷하게 나타낸 것은 그들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이 급속히 촉진된 시기부터이다.

미국에서의 민족 형성의 이러한 특성은 자본주의에 고유한 부르죠아적 악덕을 기형적으로 확대시켰다.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의 특히 심한 인종주의적 편견은 그 뿌리가 자본주의와 한 뿌리에 얽힌 데서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파렴치한 형태를 띠게 되였고 미국은 초보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귀성에 대한 모독과 유린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력사를 남겼다.

오늘도 아세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특히 남조선에서 미국 양키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을 도리여 쾌락으로 삼고 있다.

미국 인종주의자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인권 선언》을 선포한 나라라는 것으로써 자기들의 만행에 대한 비난이 근거 없다고 떠벌인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정신적 기초로까지 높이 추켜 드는 《인권 선언》은 미국 자본가들의 인종적 특권에 대한 방패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권을 제일 먼저 인정한 미국 헌법이 동시에 또한 아메리카에 존재하는 유색 인종의 노예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 인권의 특히 부르죠아적인 성격을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다. 계급적 특권은 저주되고 있지만, 인종적 특권은 신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듀링론》, 138 페지).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자본가가 로동자를 마음 대로 착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백인들이 유색 인종을 마음 대로 학대할 수 있는 특권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의 중요 특성을 이루는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등 잔인한 야수성은 개별적 몇몇 미국인들의 생리적 요구나 취미에 의하여 산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독점 자본이 지배하는 그 경제적 기초에 의하여 산생되였고 확대된 미 제국주의 제도 자체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식민지적 예속과 흑인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 인민들이 쟁취한 고귀한 전취물을 탈취하여 현대 자본주의적 고용 노예제를 확립함으로써 미국 력사 발전의 진보적 조류를 그 첫 시기부터 유린하였다.

돈에 의한 령토의 사기사적 매수는 그들이 령토 확장에서 발휘한 가장 수지 맞는 흥정이였다. 이 사기한들은 만핫탄을 불과 24 딸라 밖에 안 되는 장난'감으로 인디안들로부터 괴여 냈고 남북이 1,500 키로 메터나 되는 루이지아나를 1,500만 딸라, 알라스카를 불과 720만 딸라를 주고 빼앗아 냈다.

특히 20 세기에 들어 오면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하와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 비룡빈 등 수다한 령토를 가장 잔인한 략탈적 방법으로 탈취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계기로 미증유의 경제적 팽창을 가져 온 미제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실현하

기 위하여 남조선을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침략의 촉수를 뻗치고 있으며 인민들을 교살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미제는 세계 제국주의의 원흉으로, 세계 반동의 두목으로, 국제 헌병으로, 가장 큰 국제적인 착취자로, 현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으로 되였다.

그러나 제 2 차 대전 후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그 위력의 강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와 거세차게 타 오르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국제 로동 운동의 장성 등으로 제국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미제는 이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대내적으로는 군국주의적 파쑈 체제를 강화하며 대외적으로는 새 세계 대전 도발에서 찾고 있는바 여기서 그들은 직접적인 무력 침공에 배합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사상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사회 력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의 중요한 측면인 피착취 계급들에 대한 야수성과 인간 증오, 살인과 강탈, 사기와 협잡 등이 형성 발전되였다.

세째로, 부화 방탕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며 말초신경을 자극케 하는 색정주의가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게 된 것도 미국 자본주의 발전의 력사적 행정과 부르죠아지들의 관습적이고 야만

적인 취미와 결부되여 있다.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야만적인 강탈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부를 자기들의 치부를 위한 원천으로 부화 방탕한 개인 향락과 성'적 야욕을 만족시키는 데 탕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초창기 식민주의자들의 부화 방탕한 생활과 직접 관련되여 있는 미국 자본주의 제도의 산물이다.

미국의 초기 지배 계급들은 애국심도 민족적 량심도 문화적 전통도 소유하지 못 한 야만적인 자들로 구성되여 있었다. 그러므로 미국은 그의 초창기부터 어느 자본주의 나라보다도 가장 부패 타락한 나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야만인들의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양키식 문화는 미국 자본가들의 략탈과 착취를 보장하여 주는 중요한 사상적인 무기일 뿐 아니라 그들의 부화 방탕한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문화에 고유한 것이지만 미국 자본가들이 원래 문화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개념도 가지지 못 하였던 데다 단시일 내에 갑자기 부자가 된 데서 그들의 문화는 야만성과 추잡성을 더욱 심하게 띠게 되였다.

원래 미국에는 문화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문화는 없었다. 그들의 문화를 《딸라 문화》, 《도금 문화

(鍍金文化)》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억만 장자들의 육체적인 향락과 안일을 충족시키기 위한 저속한 취미로 일관되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포스터는 《그들의 탐욕과는 그들의 무지만이 비교될 수 있다. —문화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아무러한 개념도 가지지 못 하였다. 그들에게는 애국심도 인민에 대한 책임감도 없다.

그들은 호화로운 그러나 야비한 류달리 크고 높은 집에 살면서 타락한 구라파 귀족들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소위 사교계로 자기를 둘러 싸게 하고 뽐내여 보는 만찬회나 오찬회를 조직하군 한다. 마크 트웬은 이 시대를 〈도금 세기(鍍金世紀)〉라고 칭하였다》(《아메리카 정치사 개요》, 상권, 404 페지)고 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가들의 부화방탕한 퇴폐적인 생활 양식은 수백 년에 걸친 미국의 력사 발전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의 문화적 기질로까지 되였으며 그 후예들에 의하여 계승되였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오늘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이러한 문화를 신문, 라지오, 잡지, 영화, 텔레비죤 등 일체 문화 시설과 수단을 통하여 미국 인민들은 물론 식민지 나라 인민들 속에 부단히 주입시키고 있다. 그 결과 오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고상한 도덕적인 풍모와 독자적인 사고력을 거세 당하고 안일과 향락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

즉 《오늘의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네르기, 시간, 돈의 대부분을 육체적 감각에 바치며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서 벗어 나려고 애 쓰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서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그야 말로 육체적 생존만을 위하여 그 날 그 날을 보내고 있다》(너어링, 《오늘의 아메리카》).

이리 하여 오늘 미국은 인류 력사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 한 방대한 《금리 생활자》의 나라로 되였고 그들에 의하여 부식된 허영, 랑비, 사치, 부화, 방탕은 미국 사람들을 극도로 타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 미국인은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넋을 잃은 나라의 한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생활은 낡은 세대의 사람들에게서 창조와 건설에로의 지향을 빼앗고 어리'광 속에 자라 난 젊은 세대의 사람들을(그들은 고등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치의 절정에 도달했다) 떨어지고야 말 그 함정에 몰아 넣고 있다. 그들은 구라파에서의 왕후들이나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사치의 극치에 몰두하고 있다》(너어링, 《오늘의 아메리카》, 44 폐지).

일찌기 레닌은 제국주의를 가리켜 기생적이며 썩어져 가는 자본주의라고 규정하였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기생성과 부패성은 제국주의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제국주의 하에서

기생성과 부패성은 독점적 고률 리윤을 획득하려는 독점의 지배로부터 생겨 난 불가피한 산물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미국식 생활 양식이 형성 발전되였고 또 그것이 더욱 반동화된 사회적 배경은 자본주의 제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미 제국주의를 영원히 쓸어 버리는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

ㄴ. 미국식 생활 양식의 사상 리론적 안받침

미국식 생활 양식이 형성 발전되였고 그것이 더욱 반동화된 물질적 기초는 자본주의 제도이며 그것을 미화 분식하고 있는 것은 부르죠아 사상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정신적으로 안받침하고 있는 사상 조류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주관 관념론인 실용주의, 프로이드주의 및 실존주의이다.

실용주의는 미국이 제국주의 단계로 들어 선 19 세기 말~20 세기 초에 주관 관념론자들에 의하여 체계화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사상 조류이다.

실용주의는 철학이라고 하기보다 돈'벌이와 개인 향락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르죠아지들의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에 더 가깝다.

실용주의는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략탈 행위를

합리화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미국의 가장 지배적인 국가 철학으로까지 되였다.

실용주의 철학에 의하면 진리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면 방법과 수단의 여하를 불문하고 《진리》로 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수백만 근로자들을 빈궁과 죽음에 몰아 넣는다 하더라도 저들에게 리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곧 《진리》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자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번 밖에 태여 나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동안에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 쾌락이야말로 사람들의 행복의 척도이다. 따라서 쾌락의 원천으로 되는 개인의 재산을 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축적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설교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을 변호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만이 이 세상에서 우월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 재산을 더 많이 획득하게 하며 그것을 저축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미국식 생활 양식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을 보장하여 주는 《훌륭》한 생활 양식이다. 따라서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그들에게 적극 수출하여야 하며 그것을 방해하거나 받아 들일 것을 거절하는 자는 감옥이나

교수대에 보내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실용주의의 신봉자들은 극단의 개인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사람의 가치를 돈'벌이에서의 성공으로 보며 행복을 현금 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현실 생활에서의 육체적인 《만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미국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가치는 직업 면에서의 《업적》이며 사업에서의 《성공》이며 인격도, 착한 행동도, 량심도 모두 현금으로 환산되고 있다.

미국 청년들 속에서 그들이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한 데 의하면 그들의 절대 다수가 가장 많은 돈'벌이를 보장해 주는 재판관, 변호사, 의사, 경찰관, 회사의 중역 같은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인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용주의가 청소년들의 도덕적인 지도 원리로 될 수 없는 무능하고 타락한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학자들까지도 실용주의를 가리켜 《기업 철학》, 《상업주의》, 《도구주의》 등 별명을 달아서 부르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실용주의에는 락관주의와 금욕주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락관주의란 돈'벌이를 위해서는 자본가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담성》, 일확천금을 얻어 갑자기 부자가 되

는 요행심이 충족되였을 때의 쾌락, 부화 방탕한 동물적 향락에 대한 대명사에 불과하며 금욕주의는 악착한 수전노(守錢奴)의 인색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부르죠아 관념론 철학 조류에서도 실용주의처럼 잔인한 것은 드물며 그것은 철두철미 미국 억만 장자들의 강도적 리론으로 일관되여 있다.

이와 같이 미국 억만 장자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을 합리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실용주의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본질을 이루는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 만능, 악착한 기업욕, 부화 방탕을 부식하는 주요 바탕으로 되고 있다.

프로이드주의는 20 세기 초에 구라파에서 극단한 주관 관념론과 정신 병리학의 얼뜨기로 생긴 극히 색정적이며 반동적인 사상 조류인데 이것이 오늘 그 발생지인 구라파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식 생활 양식에 특유한 개인 향락과 부화 방탕, 색정주의를 변호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프로이드주의의 출발점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인바 궁극에 있어서 그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의 원동력을 사람의 동물적인 성욕이라고 보는 데 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동물적인 야만성은 말살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위한 투쟁에서 문명이 생겨 났다고 한다. 즉 문명

이란 성'적 충동의 억압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쟁도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서로 투쟁하면서 죽음의 본능이 승리하였을 때에 일어 난다고 한다.

이와 같이 프로이드주의는 진리를 규정하는 근본 척도로 뿐 아니라 가치를 규정하는 척도도, 도덕생활의 규범으로 되는 선도 모두 성'적 작용에서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적 본질을 부식하는데 적합한 프로이드주의를 적극 받아 들여서 국내에서 날로 심각해 가는 계급적 대립과 모순을 합리화하는데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과 불합리성을 정신병적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을 정신병 환자로 보며 지구, 덩어리를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대 병원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그리 하여 그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에 의하여 빚어지는 사회악을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 부르죠아지들은 약육강식의 강도적 리론을 합리화하는 데 적합한 프로이드주의를 개악하여 그들의 인종주의적 리론과 뒤섞어 《심리인종주의》라는 새로운 침략적 인종론을 날조하고 있다.

끝으로 실존주의도 최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반동성을 변호하는 데서 자기의 지위를 일정하게 차

지하고 있다.

실존주의는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에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제국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함께 초래된 사회적 모순의 격화, 미국 착취 계급의 타락과 퇴폐가 극도에 달함에 따라 실존주의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리론적 기초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켜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사상적 무기로 등장하였다.

실존주의의 신봉자들은 《실존》이라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자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철학의 기본 목적을 《인생의 가치 의미》에 두고 《죽음》을 재촉하는 고독한 인간의 절망 속에서 그것을 찾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번영할 래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에 직면한 통치배들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면서 최후 발악적인 환락에 침몰케 한다.

그들은 세상에는 자아(自我)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자아란 고독한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이란 존재가 이처럼 고독하고 아무러한 희망과 미련을 둘 만 한 것이 없는 것 만큼 인간은 망탕 놀며, 먹고, 되는 대로 살다가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떠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실존주의자들은 한 편으로는 미국의 백만 장자들의 극단한 타락과 퇴폐적인 생활을 합리화하면서 타방으로는 근로자들 속에 비관주의, 염세주

의 및 허무주의를 부식시킴으로써 그들 속에 부패 타락한 도덕적 분위기와 무기력을 조성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외면하도록 할 것을 설교한다.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에 의하여 그 후과가 심한 남조선에서 실존주의가 특히 류행하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이 밖에 미국에는 잡다한 각종 철학 류파와 《리론》이 범람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본질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에 대한 미국 부르죠아지들의 불안과 초조와 절망을 반영한 것이며 이렇게나 저렇게나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의 나라에 침습시키는 데 복무하고 있다.

2.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미제의 책동

근 100 년 전부터 《자선》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쳐 온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파쑈 테로 통치 체제를 수립하고 경제적 략탈과 함께 조선 인민의 민족적이고 진보적인 유구한 문화 전통과 미풍 량속을 말살하려고 광분하는 한편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여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부패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책동을 계통적으로 감행하여 왔다.

그들은 남조선을 강점하자 극악한 파쑈 테로 통치를 위한 괴뢰 군정을 조작하고 미국에서 빵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 젖은 리 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자기들의 앞잡이들을 행정 상층부에는 물론 각종 문화, 교육 기관, 적산 기업체의 관리인으로까지 배치하였다.

특히 미제는 저들이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서 여지없이 떨어진 위신을 만회하며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에 의하여 파탄에 직면한 저들의 식민지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전 직후 《한미 호상 방위 조약》을 조작하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는 한편 사상 문화적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에 더욱 광분하였다.

1954년 7월 21일 《미 국회 상하 량원 합동 회의》에서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사상 침략 정형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주한 미 공보원》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당시 서울 주재 《미 공보원장》이였던 슈바카라는 자는 《오늘날 미국은 물자 수단보다도 오히려 정신적 문화 교류에 치중하여야 한다.》(1954년)고 하면서 《한국의 교수, 법률가, 문화인, 언론인, 사절 및 려행자들은 미국의 도시, 농촌을 시찰하고 미국인들의 사고 방법과 생활 양식을 배워 가지고 한국에 와서 선전하여야 한다.》고 떠벌이였다.

그리 하여 미제는 《주한 미 공보원》,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의 《교육국》과 같은 사상 문화 침략 기구를 확대 강화하고 괴뢰 정부와 남조선의 출판 보도 및 문화, 예술 기관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켰으며 《고문단》, 《사절단》의 파견, 《인사 교류》, 《문화 교류》, 각종 재단, 《구호 단체》, 종교 단체를 리용하여 《자선 사업》의 구호 밑에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대대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적이며 진보적인 사상과 문화 그리고 조선 인민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미풍 량속을 말살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는 파쑈적인 권력 기구를 통하여, 다른 한 측면으로는 각종 물질적 수단과 선전 수단들, 종교 기관 등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1)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각종 기구

반동적인 사상, 문화, 생활 양식은 제국주의자들의 중요한 침략 도구의 하나이다. 특히 구식민주의와는 달리 명목 상 《독립》을 허여하는 식민지 통치 방법인 신식민주의는 인민들에 대한 사상 문화적 예속을 더욱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남조선의 사상 문화 기구를 완전히 지배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침략 정책 수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리용하여 왔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 기구로서는 미국 정부 기구, 민간 단체, 국제 기구 그리고 남조선 괴뢰 정부 기구 등이 있는바 이 기구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의 정부

기구로서는 우선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공보원》이 있다. 이 기구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을 통일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다.

《공보원》의 임무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것이다. 이 《공보원》의 사명에 대하여 전 《주한 미 공보원장》이였던 아놀드라는 자는 《미국의 발전, 미국의 민주주의가 기초로 하고 있는 개념 및 미국의 생활 양식과 미국의 경제 조직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바쳐지고 있다.》(《국제 평론》, 1959년 2 호)고 떠벌였다.

《공보원》은 방대한 기구와 전문 일'군들을 가지고 출판, 방송, 영화 상영 및 제작, 사진 보도, 문화관, 영화관 경영 등 《문화 활동》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고 있다.

《공보원》에서는 출판 《보조금》의 지급, 출판 번역권의 《양도》, 《도서 기증》 등의 방법으로 미국 출판물의 수입, 번역 및 출판 등 사업을 계획, 통제하고 있으며 각종 신문, 잡지, 통신을 직접 발간하고 있다.

《공보원》에서는 《시사 통보》를 비롯하여 《자유세계》, 《월간 아메리카》, 《자유의 벗》, 《뉴스 레뷰》 등 잡다한 신문 잡지들과 미국 《지도자들의 연설집》을 소책자로 발간하여 직접 남조선 각지에 퍼뜨리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보내 오는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통신 자료들을 번역하여 남조선 출판 보도 기관에 제공하여 이것을 보도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미국 《공보원》에서는 남조선의 중요 도시들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마산, 대전 등에 자기의 산하 기관인 《공보관》과 《문화관》을 설치하고 이것을 거점으로 남조선 인민들에게 부패 타락한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문화관》, 《공보관》에서 설치한 영화관들에서는 미국에서 수입한 영화는 물론 《성남 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한 영화들을 광범히 상영하고 있으며 포스터, 사진, 미술 작품 전시회 등도 수시로 조직 진행하고 있다.

《문화관》 소속 도서관들에서는 미국 신문, 잡지, 소책자들을 비치하고 그것을 매일 수백 명의 《등록 대상자들》에게 열람 대출하는데 이 도서관 리용자들에게는 다른 출판물을 보지 못 하도록 통제를 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 밖에 《공보원》은 미국 영화의 수입, 번역, 배포 사업을 장악 통제하는 사업과 함께 《유엔군 방송국》, 《미 주둔군 방송국》을 관할하면서 《서울 방송국》으로 하여금 《미 합중국 문화 정보국》이 보내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중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영 및 민영 방송국을 통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관》과 《공보관》은 미국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직접 침투시키며 부식시키는 중요한 거점으로 되고 있다.

또한 미 《국무성》이 수행하는 사상 문화 침략의 현지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문정과(文政課)》와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의 《교육국》과 《기술 원조국》이다.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문정과》는 미 《국무성》이 담당하고 있는 《인사 교환》 및 《문화 교류 계획》을 집행하는 외에 《주한 미 교육 위원단》, 《한미 교육 관계자 합동 위원회》,《한미 합동 장학 위원회》 등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합동 회의, 연구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고 학자, 전문가, 교육인, 학생 교환, 류학생의 장학금 알선, 교육, 과학, 문화 연구 활동의 시찰, 강연 또는 강습들을 통하여 지식인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하는 데 종사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데 있어서 《주한 미 경제 협조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제는 이상과 같은 정부 기관 외에 각종 민간 단체들과 《재단》들도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데 광범히 리용하고 있는데 《재단》은 사상 문화 침략에 있어서 미제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이다.

지금 미국에는 90억 딸라에 달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7,000 개 이상의 각종 《재단》들이 조직되여 있다. 이 《재단》들은 《문화 교류》, 《구호 사업》의 탈을 쓰고 《반공》 선전과 함께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 독점 재벌들의 침략 기구이다.

현재 남조선에는 《아세아 재단》, 《한미 재단》,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하바드 엔칭 학사(哈佛燕京學社)》 등 각종 《재단》이 침투되여 있는데 그들은 약간의 딸라를 던져 주는 것으로써 남조선 학자들과 학생들을 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술 문화 활동을 틀어 쥐고 있다.

1953년에 조작된 《아세아 재단 한국 지부》는 과학 연구 기관 및 단체의 설치, 《학술 연구 보조금》, 《인사 교류》 등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부식시키고 있다.

이 《재단》은 자기 산하에 《한국 연구 도서관》을 설치하고 이것을 통하여 미국을 선전하는 도서 열람 사업을 조직하고 있으며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 필요한 문화 정보 자료들을 제작 출판케 하고 있다.

《한미 재단》은 조선 전쟁에 참가하였던 악명 높은 살인 장군 밴플리트의 지시에 의하여 1952년에 설치된 《재단》으로서 여기서는 주로 보건 후생, 난민 《구제》, 교육과 《자선 사업》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미제는 이 외에도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하바드 엔칭 학사》 등과 같은 침략 기구를 남조선에 침투시켜 남조선의 교육, 문화, 과학 기관들과 예술 단체들을 통하여 저들의 사상 문화 침략 정책의 음흉한 반동적 본질을 미화 분식케 하고 있으며 얼마 되지 않는 딸라로 남조선 과학자들을 매수하여 조선 인민의 유구한 문화 전통을 말살하고 선천적인 락후성을 론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민간 단체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1954년에 조작된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도 사상 문화 침략을 감행하고 있으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미제는 괴뢰 정부의 《문교부》와 《공보부》 그리고 기타 교육, 문화, 예술 기관들과 출판 보도 기관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그것을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데 동원 리용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괴뢰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한 바와 같이 문화 정책도 미국 《고문관》에 의하여 수립되며 집행되고 있다.

괴뢰 정부의 《문교부》는 교육, 과학, 기술, 예술, 체육, 출판,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문화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미제는 《문교부》와 그 산하 기관들을 재정 기술적으로 예속시키고 여기에 《고문》,

《사절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저들에게 충실한 주구들을 미국에 데려다 훈련시켜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교부》를 자기들의 침략 도구로 리용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괴뢰 정부의 《공보부》(1961년 10월에 설치)와 그 산하 기관을 통하여 미국 영화와 출판물의 수입, 배포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내외 선전, 정기 간행물, 영화 및 연예와 방송 등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괴뢰 정부와 그의 조종 하에 있는 학교, 사회 단체, 과학 문화 기관, 문예 단체, 선전 기관 등에 파견한 자기들의 《고문》, 《전문가》들을 통하여 이 기관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남조선 괴뢰들을 저들의 식민지 문화 정책의 적극적인 집행자로 내세우고 있다.

2)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

남조선의 사상 문화에 대한 지배와 함께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 즉 《인사교류》, 《원조》, 각종 출판물, 방송, 영화, 예술, 종교 및 강연, 강습, 전시회 등 온갖 수단을 다 리용

하고 있다.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직접 부식시키고 있는 것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양키 군대와 미국인 사민들이다.

오늘 남조선에 기여 들어 와 있는 미국인만 하여도 양키 군대를 비롯하여 무려 수만 명이 넘는다.

이들은 미국에서 습성화된 생활 풍습과 《도덕》 그 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이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킴에 있어서 《인사 교류》의 방법을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들은 《한미 량국 간의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량국 인민들 사이에 우의를 증진》시킨다는 미명 밑에 남조선 반동 문화인들을 미국에 불러다가 《교육》시켜 남조선 교육 문화 기관에 배치하는 한편 미국의 반동적인 문화인들도 수시로 남조선에 침투시키고 있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2,356 명에 달하는 남조선 반동 문화인들이 미국에 불리여 가서 양키식 생활 양식으로 교육을 받고 돌아 왔으며 미국인들이 공'적 또는 사'적으로 남조선에 기여 든 자만도 196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8,381 명에 달한다(《합동 통신》, 1963년 12월 7일).

이 밖에 《기술 훈련 계획》에 의하여 남조선 청

년들을 미국에 데려다 《미국식》 훈련을 주어 보낸 수는 2,356 명에 달하며 《고문단》, 《시찰단》, 《사절단》, 《교환 교수》의 명목으로 남조선에 기여 들어와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고 있는 자들도 수천 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미제는 앞으로 자기들의 주구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선발하여 류학의 형식으로 미국에 끌어다가 식민지 노예 교육을 주입시킨 후 남조선의 중요 기관에 배치하고 이들을 식민지 략탈의 앞잡이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선전자로 리용하고 있다. 해방 후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에 미국에서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받은 류학생은 상당한 수에 달하며 오늘 남조선 괴뢰 정부의 중요 요직에는 미국 류학생 출신인 미제의 앞잡이들이 적지 않게 들어 앉아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세기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출판물과 방송을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그것은 출판물과 방송망을 리용함으로써 많은 독자들과 청취자들을 대상할 수 있고 비교적 신속하게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제는 출판물의 수입 번역에 심중한 관심을 가지고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할 수 있는 도서와 잡지 및 화보들을 대대적으로 수입

번역하도록 괴뢰 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그 조치로서 미제는 1958년에 《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데 대한 대한 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교환 각서》, 1959년에는 《대한 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정보 매개물 보장 계획에 관한 협정》을 조작하고 미국 출판물을 대대적으로 수입 번역하도록 하였다.

또한 1955년부터 1959년까지의 5 년 간에만 하여도 추잡한 통속 잡지를 비롯하여 수십만 권에 달하는 각종 출판물들이 미국에서 수입되여 남조선 각지에 보급되였다. 지금 적지 않은 반동적인 도서들이 번역되여 대학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 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죤 듀이, 윌리암 제임스 등의 실용주의 철학과 교육 리론, 케인즈의 경제학 등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주요 잡지, 신문들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소개 선전하는 글을 게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잡지 《사상계》만 하여도 1960년부터 1963년까지의 기간에 미국 관계 기사를 72 건이나 실었는데 그 중 적지 않은 글들은 기행문, 방문기 형식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소개한 것이였다.

미제는 방송을 통한 사상 문화 침략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바 직영 방송국은 물론 남조선 관영, 민영 방송국을 직접 통제 장악하고 방송국들로 하여금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전하게 하

며 또 미국의 정보 모략 기관들이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 《자유의 소리》 등을 중계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출판물, 문예 작품, 방송 등은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데 리용되고 있다.

미제는 광범한 대중들을 대상하는 영화, 음악, 무용을 남조선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과 미국식 생활 양식 부식의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 리용하고 있다.

1954년 미국 국회 하원 정부 사업 분과 위원회 국정 감사 보고서 《한국에 있어서의 구호와 부흥》에는 신문, 방송과 함께 영화가 도서관과 같이 완만한 수단에 비하여 시의적(時宜的) 정보를 대단히 급속하게 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바로 그것은 퇴폐적이고 세기말적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그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킬 수 있고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민족적이며 진보적인 영화 예술의 발전을 억제하면서 미국 영화의 무제한한 수입을 위한 책동을 감행하여 왔다.

미제는 1946년 12월 《군정령》으로 《영화 상영 규정》을 조작하고 남조선 영화관들에서 미국 영화를

무조건 상영하도록 강요하였으며 1954년 4월에는 외국 영화와 국산 영화의 상영 비률을 8:1로 정하게 하고 미국 영화 수입에 치중할 것을 괴뢰 정부에 강요하였다.

미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괴뢰 정부로 하여금 각종 《영화법》을 조작케 하고 량심적인 영화인들의 활동과 진보적인 영화 제작을 탄압하는 한편 저들의 수중에 있는 《중앙 영화 배급사》를 통하여 미국 영화의 우선 상영을 강요하면서 남조선 영화에 대한 통제권, 검열권, 상영 허가권을 강탈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에서 영화 제작은 심히 위축되고 미국 영화가 판을 치게 되였다. 그것은 1955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에 《국산 영화》는 겨우 몇 편이 제작된 데 비하여 같은 기간에 미국 수입 영화는 무려 798 편이나 되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수입되여 남조선 각지 영화관들에서 상영되는 미국 영화는 그 절대 다수가 색정, 살인, 깽, 탐정 등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1958년 한 해 동안에만도 많은 외국 영화가 상영되였는데 그의 80% 이상이 색정, 깽, 탐정을 내용으로 한 것이였다는 것을 보면 퇴폐적인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남조선에 범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도 상영 금지된 퇴폐적인 영화들을 남조선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어

수출용 필림에는 라체 장면을 찍어서 수출하고 있다(《서울 방송》, 1960년 10월 25일).

남조선에 투입된 미국 영화가 얼마나 색정적이며 렵기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남조선 괴뢰들까지 미국 영화 《욕망의 계곡》, 《악의 대결》과 같은 것을 보고 이것은 《미풍 량속을 문란케 하고 국민 도의를 퇴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한 데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미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민족적 외피로 위장한 《국경을 넘은 우정과 사랑》, 《서울의 말광량》과 같은 《한 미 합작》 영화를 제작하여 남조선에 퍼뜨리는 교활한 술책까지 쓰고 있다.

이러한 미국 영화의 대량적 투입과 함께 반동적인 쟈즈 음악과 무용도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것은 쟈즈 음악과 무용을 인민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면 그들을 광란적인 색정의 세계에 도취케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켜 그들 속에서 안일과 부화, 무기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 음악과 진보적인 음악을 탄압 말살하고 이러한 세기말적인 쟈즈 음악과 무용을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반동적인 쟈즈 음악과 무용을 남조선에

류포시키기 위하여 미제는 쟈즈 음악과 무용 부문의 예술인들과 예술 단체들을 대량 투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만 하여도 쟈즈계의 《왕》이라는 루이 스트롱을 비롯한 가수 5명을 《워커 힐》(서울에 있는 유흥장) 개관을 계기로 남조선에 끌어 들이였으며 미《국무성》 계획에 의하여 《예밀리 무용단》, 《흑인 무용단》, 《캘리포니야 대학 연극단》 등을 침투시키였다.

동시에 미제는 남조선 도처에 각종 유흥장을 확장케 하고 가요 가수와 무용가들로 된 《쑈》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쑈》단들은 일반 대중 속에까지 침투하여 쟈즈 음악이나 퇴폐적인 춤을 퍼뜨리고 있다.

지어 서울 대학교, 리화 녀자 대학교 등 남조선의 대학들에 음악, 무용 부문의 《교환 교수》들을 파견하여 학생들에게까지 쟈즈 음악, 맘보춤, 트위스트춤 등을 류포시키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민족 음악과 무용은 여지 없이 말살되고 미국의 쟈즈 음악과 무용, 퇴폐적인 류행가들이 만연되여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를 사상 문화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원조》는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는 데 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식 생활 양식과 《반공》, 숭미 사상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부식시키며 자기들의 침략 정책에 복무하는 예속 자본

가와 사상적인 미숨'군들을 양성하는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것은 1948년 12월 10일에 조작된 악명 높은 《한미 원조 협정》 제 5 조 4 항에 지적되여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미제가 《원조》의 명목으로 남조선 인민에게 강매 처분하는 미국 잉여 상품과 그 포장 용기에 《유에쓰에이(USA)》란 도장을 잘 보이도록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다름아닌 숭미 사상과 미국에 대한 환상, 의존심을 주입시키며 나아가서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미국 상품, 미국식 생활 도구, 미국식 규격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의 경제 《원조》가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급속히 부식시키는 수단으로 되고 있는 데 대하여 남조선의 한 잡지의 필자는 《…무엇보다 그들이 가져 온 피엑스(PX—군용 물품 매매)의 범람은 그들이 가진 버릇, 맵시, 표현, 기호보다도 더 큰 문화 접촉을 일으켰으며 아마 그것도 실로 보통 상태에서 반세기나 한 세기나 걸려야 할 문화 도입을 단시일에 완성한 셈이 되고 말았다.》(《녀원》, 1963년 2 호)고 썼다.

이러한 《원조》나 미국 군용 계통을 통하여 남조선에 들어 오는 물자의 75%는 잉여 소비재인데 이

것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과 기호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재로써 미제는 국내 생산의 안받침 없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극단의 사치 생활을 조장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을 부화 방탕한 생활과 범죄로 이끌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잉여 소비품의 범람으로 인한 허영, 사치, 부화의 풍조 때문에 알뜰했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밥은 굶는 한이 있어도 옷만은 최고로 입어야 하는 허영의 영웅이 되고 말았다…상인들이 부리는 류행의 요술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난한 부모를 울렸고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고스란히 옷 값에 털어 넣은 현상을 빚어 내》(《국제 신보》, 1962년 8월 15일)고 말았다.

미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광범한 대중 속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대중 단체들도 광범히 리용하고 있다.

미제는 《농촌 교도 사업》, 《4에취 구락부》, 《농촌 마을 문고》, 《기독교 농민 학원》 같은 것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남조선 농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미제의 경제 《원조》 기관과 괴뢰 정부가 공동으로 조작한 《농사 교도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농촌 교도 사업》은 그 산하 기관들을 통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의 농촌 수탈 정책을 은폐하면서 농민들에게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고 있다.

《4에취 구락부》 역시 《지, 덕, 근로, 건강》의 구호 밑에 그 산하 2만 1,454 개의 조직체에 60여만 명(1963년 말 현재)의 회원을 망라하고 농촌에서 《농업 기술 개량》, 《생활 개선》, 《교양 제고》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것은 농민들과 그 자제들에게 《반공》,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

《농촌 마을 문고》도 역시 이러한 반동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바 출판물을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농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수단이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인민들의 《생활 개선》과 《문화 계몽》을 한다는 구실 밑에 한 때 《국가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것을 벌려 놓고 《가족 계획》이니 《미인대회》니 《향토 문화제》니 하는 연극을 꾸며서 인민들을 우롱하였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데 있어서 종교와 《사회 사업》 기관도 리용하고 있다.

종교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 침략에 있어서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진 침략 도구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서 남조선 주재 《미국 대사관》의 《문정관》 핸더슨은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 관계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보다 먼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였다. 한국(남조선을 말함—편집자)과의 문

화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에게 심심하고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국제 평론》, 1959년 2 호)라고 떠벌이였다.

이와 같이 종교를 력사적으로 조선 침략의 도구로 리용해 온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미국 계통의 기독교, 천주교 등 각종 교파를 끌어 들여 종교 침략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 정책은 기독교, 천주교 세력을 확장함과 동시에 종교 교파를 세분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분렬시키며, 무지와 몽매 그리고 《반공》, 숭미 사상을 설교함으로써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데 있다.

이러한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종교 정책에 의하여 해방 후 남조선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 세력들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바 1962년 현재 교회 수 1만여 개에 738만여 명의 신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 세력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조종 하에 남조선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되고 있다. 기독교 계통의 교육 문화 후생 기관 설치 정형만 보더라도 신학 대학 및 신학교 12 개,중 고등 학교 158 개를 비롯하여 방송국, 신문사, 출판사, 병원 등을 가지고 있다.

미제는 종교 계통의 많은 기관들을 직접 틀어쥐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굴종과 몽매, 미국식 《도

덕》을 설교하고 있으며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사회 사업 기관을 통하여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얼마 되지도 않는 《구호 물자》를 미끼로 기아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나꾸어 그들에게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미제는 미국인 선교사들을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남조선 종교인들을 직접 미국에 데려다 훈련을 주어서 그들을 사상 문화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미제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리용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세기말적인 사회악과 패륜, 패덕이 늘어 가고 있으며 민족 전래의 미풍 량속은 여지 없이 유린 말살 당하고 있다.

3. 미국식 생활 양식이 남조선 사회에 미친 후과와 그것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조선 인민은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그리고 고상한 애국주의 전통과 건전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량속은 오늘 우리 당과 정부의 옳바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찬란히 꽃피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기반에서 한날 한시에 해방된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괴뢰 도당의 매국 정책으로 인하여 암흑의 땅으로 전변되였다.

결과 오늘 남조선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국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인민들은 살아 나갈 길이 없어 생사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남조선 괴뢰 통치배들의 패륜과 패덕, 부화한 생활은 날로 우심해 가고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파국적인 상태는 미제의 남조

선 강점과 그들이 퍼뜨려 놓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이다.

그러면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이 침습된 결과 도덕 생활과 정신, 문화, 언어 및 물질 문화 생활에 어떠한 후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 미국식 생활 양식이 사회 도덕 생활에 미친 후과

ㄱ. 개인 리기주의가 지배하는 남조선 사회

오늘 남조선 사회 생활에서는 개인 리기주의적 생활 규범이 지배하고 있다. 이 사실을 폭로하여 남조선 잡지 《신태양》까지도 《도률이나 법률 등은 아득한 먼곳의 잠꼬대인양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메려 눕히고 권력과 금력을 가진 특권배들이 인민들을 짓밟고 있다.》(1959년 1 호)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남조선의 정상배들은 더 많은 치부와 개인 향락을 누리기 위하여 미제의 조종 밑에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폭압과 략탈을 감행하고 있으며 나라를 팔아서까지 그 밑천을 짜 내고 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파쟁, 권모술수, 사기, 배

신, 매관, 매직, 모해, 수뢰(受賂) 등 온갖 부정과 부패를 거래하는 악의 소굴이다.

리 승만은 《대통령》 직위에 앉아 있는 기간에 예속 자본가들과 정상배들에게서 매관 매직을 통하여 헤아릴 수 없는 거액의 뢰물을 받아 먹은 외에 130억 환에 해당하는 《국고금》을 부화 방탕한 생활에 탕진하였고 리 기붕은 325억 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정 사취하여 개인 향락에 탕진하였다. 이들은 1960년 《3.15 정, 부통령 선거》 당시 예속 자본가들로부터 82억 9,000만 환에 해당하는 자금을 받아서 탕진하였다.

장 면 역시 집권하자 마자 자기의 집을 꾸린다는 구실로 4억 2,000만 환에 해당하는 《국고금》을 탕진하였는바 이 금액은 당시 남조선에서 8,400 세대의 주민이 1 개월 간 생활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에 해당한다.

미제의 조종 하에 5. 16 《군사 정변》으로 집권한 박 정희 도당의 부정 행위 역시 《구정치인》들을 훨씬 릉가한다.

박 정희 도당은 《4대 의옥 사건》에서 2,000만 딸라를 부정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매관, 매직, 사기와 협잡으로 《긁어 모은 돈을 자기들의 정치적 지반 축성과 개인 향락에 탕진하였는바 그는 《민주 공화당》을 조직하는 데 2,000만 딸라나 소비하였다. 또한 박 정희는 군사 《정권》 당시에 경상 북도 《도

지사》에게 《아무 데나 보태 쓰렴》 하면서 1억 환을 던져 주었다.

서방 출판물들까지도 박 정희 개인의 명의로 저축한 것이 적게 잡아서 500만 딸라, 김 종필은 그것의 2 배, 《최고 회의 의원》들이 은밀히 사취한 것만도 상당한 액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이스턴 월드》, 1963년 4월 호).

박 정희 도당의 《부정 축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는바 최근 세상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수다하다. 이에 대해서 남조선 신문 《대한 일보》(1964년 4월 10일)는 《하도 이 곳 저 곳에서 극단적인 부정 부패의 사실이 드러나므로 이제는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의 의미가 무가치하게 된 것 같다. 최근에 나타난 것만 해도 3 분 폭리(三粉 暴利) 사건(69억 원의 리득을 내게 함), 조폐 공사의 위조지폐 사건, 전매청의 부정 사건 그리고 사직 공원을 비롯한 각처 국공유지(國公有地) 부정 불하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모양 대로 계속해서 부정 부패가 터져 나오면 우리 국민은 도저히 기가 막혀서 살 수가 없다.》고 썼다.

이 악당들은 사직 공원 뿐 아니라 삼청 공원, 홍릉(洪陵) 수유리, 남산 동구릉(東九陵), 구왕실 림야 등 경치 좋고 유서 깊은 명승 고적과 유원지마저 팔아서 유흥 생활에 탕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막힌 행동에 대해서 남조선 신문까지도 《세습 가산을

탕진한 탕아가 제 조상의 무덤을 팔아서 화첩(花妾)을 사는 패륜의 극악 무도를 련상케 한다.》(《매일 신보》, 1964년 4월 11일)고 썼다.

그 뿐 아니라 박 정희, 김 종필 일당은 과거 36년 간이나 조선 인민을 략탈한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넘기기 위한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벌써 약 5,000만 딸라를 받아서 부화 방탕한 생활에 탕진하였다.

이러한 개인 리기주의와 향락에 기초한 부정 부패는 괴뢰 정권의 중앙급 관리는 물론 지방 말단 하급 관리들에게까지도 만연 되였다. 1961년 《5. 16》때부터 1963년 3월 18일까지의 기간에 각급 관공리들이 사기 횡령한 금액은 무려 250억 원에 달하는바 이것은 군사 《정권》 예산의 3 분의 1에 해당한다(《한국 일보》, 1963년 3월 19일).

결과 오늘 남조선에서는 《자기 개인의 탐욕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마음, 나라야 망하든 흥하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고 방식》(《경향 신문》, 1964년 4월 18일)까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조선 인민들은 옛날부터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히 싸운 을지 문덕, 리 순신 장군과 같은 애국 충성에 불 타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생각하

고 노력하며 이웃 간에 화목하며 서로 돕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목전의 개인 리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였다.

이러한 말세기적 현상은 오늘 남조선에서 깡패가 활개 치며 《강력범》 사건이 격증하고 있는 사실이 잘 말하여 준다.

깡패들의 《갱》 행위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비호 하에서 감행되고 있는바 한 때 서울시 내에만 하여도 이러한 깡패는 무려 5만 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땅벌레》, 《백골단》, 《이'발단》 등과 같은 이름을 붙인 일정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으며 괴뢰 통치배들로부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장을 받으면서 경찰의 암해 테로 통치의 앞잡이로, 진보적 력량에 대한 테로와 학살, 《정적(政敵)》 암살의 집행자로 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은 리 정재, 신 도환, 림 화수와 같은 깡패 두목들을 《국가 요직》에까지 배치하고 인민 탄압에 리용하였으며 그의 전철을 따라 오늘 박정희 도당은 깡패 두목으로 이름 난 김 두한이란 자를 단장으로 하는 《애국단》이라는 《깽단》까지 조작하여 놓고 이들을 《정적》 탄압에 리용하고 있다.

《조선 일보》(1963년 8월 24일)에 의하더라도 《애국단》은 사회 단체라는 탈을 쓰고 괴뢰 정부에 등록까지 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기동대》, 《경호대》, 《공작대》, 《정찰대》와 특히 유

도 유단자 및 재향 군인(제대 군인 장교)들로 구성된 2만 7,000 명의 《별동대》까지 가진 폭력 집단이다.

남조선의 깡패들은 괴뢰 도당이 수입한 미국의 《깽》 영화를 보고 거기에 오염되여 《깽단》을 조직해 가지고 살인과 강도, 강간과 방화, 위협과 공갈, 폭력 행위 등 온갖 행패를 다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그것을 제거할 대신 도리여 조장하고 있다.

이리 하여 오늘 남조선은 《대낮에도 칼부림이나 주먹 세례가 일어 나고…밤'거리는 그야 말로 깡패들의 세상이고 그들의 직할 국가가 되여 버리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인민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범죄자들 중에는 청소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서운 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미국 영화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나왔다는 것은 다음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능히 알 수 있다.

서울 배재 고등 학교 학생 리 모는 미국 영화에서 본 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 해 보려고 밤'중에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가리고 자기 아버지 방에 들어 가 돈을 내라고 권총으로 협박하다가 아버지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를 쏘아 죽였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는 사소한 금품에 유혹되거나 일시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을 속이며 나아가서는 친족까지 살해하는 범죄 행위가 수다히 벌어지고 있다.

1962년 4월에 림 모와 김 모는 기차 안에서 어린아이를 랍치하여 가지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를 고의적으로 창 밖에 떨어뜨려 죽이고는 이것을 도리여 운전 과실로 뒤집어 씌워 운전수로부터 《위자료》 2만 2,000 원을 받아 먹었다.

경상 남도 함안군의 경 모는 분가 당시 재산을 적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여 형을 비롯한 그의 가족 4 명을 단도로 찔러 죽였다. 1963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의 100여 일 동안에만도 이러한 근친 살상 사건은 무려 23 건이나 발생하였다(《조선 일보》, 1963년 4월 17일).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교양에 실망하고 있다. 이 나라 10 대 소년은 아버지의 아들이나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라 영화의 아들이요, 손자며 눈에 보이지 않는 불량성과 반항의 아들이요 손자다.》(《한국 일보》, 1962년 12월 29일)라고 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사기와 협잡배들이 나타나 령세 농민들과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하여 이들의 재산을 략탈하는 범죄 행위가 빈번히 일어 나고 있다.

부산시의 한 사기한은 《고려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체국》에 사서함(私書函)까지 개설하여 놓고 사원을 모집한다고 하면서 124 명의 도시 실업자들과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매인 당 500~800 원까지 받아 가지고 행방을 감추었으며 윤 모란 자는 30만 평에

해당한 경작지를 괴뢰군으로부터 넘겨 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기만하여 령세 농민들로부터 130만 환을 받아 먹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군사 정변》 후 미제와 군사 《정권》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고 있다. 그것은 각종 범죄 사건들이 더욱 격증하고 있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1962년 1 년 동안에 무려 72만 3,985 건의 각종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리 승만 통치 말기인 1959년에 비하여 4 배, 장 면 통치 시기인 1960년에 비하여 2.2 배나 증가된 것이다.

남조선에서 사기, 횡령, 기만, 배신, 강탈, 살인 등 온갖 범죄와 사회악이 횡행하게 된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들이 퍼뜨린 미국식 생활 양식이 빚어 낸 후과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매일 신문》(1962년 3월 14일)은 《최근처럼 그것이(패륜, 패덕)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자못 한심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이후 노도와 같이 몰려 들어 온 외래 풍조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반만년 동안 혈관을 타고 자자손손에 전해 내려 온 우리의 기본 정신을 이렇게도 쉽사리 짓밟아 버려서야 되겠는가.》고 개탄하고 있다.

ㄴ. 극도로 부패 타락한 도덕과 륜리

오늘 남조선에는 추잡하고도 렵기적인 양키 문화를 비롯한 반동적인 문예물들이 범람하며 《캬바레》, 《빠》, 《댄스홀》, 《료정》, 《사창》 등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한 때 《구악을 일소》한다고 떠벌였으나 오늘 남조선에서 《신악》은 《구악》을 훨씬 릉가한다.

박 정희 도당은 《매음부》를 일소한다고 하면서 《매음부》를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여 놓고 여기서 매음 행위를 공공연히 하게 함으로써 남조선에는 《사창굴》이 아니라 사실 상 《공창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들은 미군의 《권태'증을 풀어 주기 위한 호화로운 도박장과 유곽을 건설하기 위하여 얼마 되지도 않는 외화 중에서 500만 딸라나 소비》하여서까지 대《유흥장(워커힐)》을 한강반에 건설하여 놓고 이것을 《외화 획득을 위한 원천》이라고 떠벌였다.

이들은 자기들의 음탕하고 부화한 생활을 인민들 앞에서 눈가림하기 위하여 《료정을 없앤다》, 《관

리들의 료정 출입을 금한다》고 한 때 떠들었으나 《고급 료정》은 물론 《탐관 오리가 있고 모리 간상배가 발호하고 있는 이상 비밀 료정은 어제도 오늘도 장안의 하늘 밑에서 일대 성황을 이루고》(《대한 일보》, 1964년 3월 5일) 있으며 여기서 갖은 추잡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유흥장》의 성행으로 남조선에는 《인육시장》이 형성되여 30만 명에 달하는 불우한 녀성들이 각종 《유흥장》에 팔리여 들어 가 온갖 굴욕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 도덕을 극도로 부패타락시키며 풍기를 문란케 하는 온상으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 도덕이 극도로 부패 타락한 현상은 도덕 생활의 문란과 가정 생활의 파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남조선에서는 《장관댁》이라고 불리우는 《고관》들의 처들이 자기 남편을 속이고 《땐스홀》과 《캬바레》를 찾아 다니면서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남조선에서는 청소년들이 부화방탕한 생활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바 196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풍기 문란으로 적발된 것만도 6,000 건에 달하며(《매일 신문》, 1962년 12월 1일), 같은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서울에서만도 청소년 풍기 문란으로 적발된 것이 월 평균 300 건이였으나

8월 이후에는 이것이 더욱 증가하여 1,000여 건에 달하였다(《서울 신문》, 1963년 4월 1일).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풍기 문란과 패륜, 패덕 행위가 성행하는 데 대하여 괴뢰 통치배들은 그것이 조선 인민의 《도의 의식이 저렬하기 때문이며 민족성이 렬등하기 때문》이라고 뇌까리면서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모독하고 있다.

조선 민족은 옛날부터 자기의 안해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된 몸으로는 어버이를 공경하는 정절(貞節)하고 례절 있고 의리가 밝은 민족이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정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여 왔다. 일찌기 임진 조국 전쟁 때도 그랬고 청 나라 침략 군대가 쳐 들어 왔을 때도 그랬다. 우리의 수천 수만의 녀성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언정 자기의 몸을 침략자에게 더럽히지는 않았다. 자기의 목숨으로 조선 녀성의 절개를 지켜 온 녀성들의 이름이 그 얼마나 많이 전해 오는가!

임진 조국 전쟁 때 우리 조선 녀성들은 적들의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덤벼 드는 왜놈과 싸웠으며 몸에 위협이 닥쳐 왔을 때에는 목숨을 끊으면서도 자기의 절개를 굳건히 지켰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 녀성들은 정절하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 향락과 도덕에 대한 《미국식》 관념에 물젖어 건전하였던 가정 도덕을 유린 파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 그대로 《실험 결혼》, 《계약 결혼》이라 하여 일시적 향락만을 목적으로 얼마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다가 헤여지는 악습이 류행되고 있다.

이러한 악습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과 광범한 사회계의 여론에 의하여 응당한 규탄을 받고 있으나 남조선 괴뢰 도당의 반동적인 정책과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은 악질적인 문필가들에 의하여 출판물들에 공공연하게 게재되고 있다. 퇴폐적인 잡지 《명랑》은 1962년 1호에서 《결혼 전에 동서 생활은 어떤가》라는 글을 싣고 거기서 결혼 전 동서 생활은 《경제적이며 생산을 서둘러야 할 경우에는 더할 나위도 없다.》고 하면서 손해보다 리득이 많으니 《장려》해야 한다고까지 하였다.

부패 타락을 인민들 속에 부식시키는 글을 써서 남조선에서 제일 돈'벌이를 많이 하는 정 모라는 작가는 《부모를 양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요, 아들을 기르는 것은 저금하는 것이요, 딸을 기르는 것은 자선 사업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녀원》, 1962년 12월 호)라고 떠벌였다. 혈육의 의리도, 애정도, 사회적 책임도 모두 금전으로 환산하는 반동 문화인들의 륜

리가 오늘 남조선 사회를 부패 타락시키며 범죄 행위를 조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놀고 있다.

남조선에서 남녀 간의 부화 방탕한 생활은 불피코 영아(嬰兒), 유기(遺棄) 사건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박 정희 도당은 최근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고 도리여 이것을 장려하고 있다.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남녀 간의 부화 방탕한 생활은 가정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 하여 남조선에서 리혼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1958년에 5,802 건이였으나 1961년에는 9,000 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법》의 판결을 받은 것뿐이고 실제에 있어서 리혼 건수는 그 몇 배에 달할 것은 두말할 것 없다.

남조선에서 리혼을 류행병으로 전염시킨 것은 미국식 생활 양식이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잡지는 《요지음에 이르러서는 미국풍에 젖었는지 도저히 리해할 수 없는 리혼 소송이 늘어 가고 있다.

가령 해외 실화나 외국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정신적 학대 등의 리유가 바로 그것이다.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느니, 귀가 늦어 정신적 손해를 본다는 등 하는 우리 나라의 풍속으로써는 납득이나 리해가 되지 않는 리유로 리혼하고 있다.》(《진상》, 1960년 4 호)고 하였다.

남조선의 녀배우들은 미국 녀배우들처럼 추잡한

리혼 소동을 퍼뜨리는 것을 인기(人氣) 획득의 주요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에서 사회 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장본인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 양키들이다. 이 귀축 같은 양키들은 불법적이며 동물적으로 부녀자들을 겁탈하거나 금품으로 매수하여 롱락하는 추잡한 행동을 남조선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는 《위안부》라는 명목으로 양키들에게 롱락 당하는 녀성들이 무려 9만 명이나 있다. 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수 많은 남조선 녀성들이 미군 야수들에게 갖은 굴욕과 모욕을 당하고도 매질까지 받아야 하는 억울한 인간 이하의 처지에 놓여 있다.

1959년 12월 31일 양키놈들은 경기도 포천군에서 한 녀성을 유인하여 롱락하고는 가죽 채가 부러지도록 때린 후에 옷을 벗기고 몸에다 황색 뼁끼칠을 하여 부대에서 내쫓았다.

보라. 양키들은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기한들인가를! 이들은 인간의 도덕과 량심을 저버린 문명과 례절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의 가죽을 쓴 야수들이며 야만인들이다.

오늘 남조선은 극심한 생활고와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로 인하여 자살이 세계에서 제 1 위를 차지한다. 자살률의 세계적 평균은 인구 10만 명에 10 명으로 되여 있다.

그런데 남조선 평균은 28 명이다. 남조선 자살

사건에서 경향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일가족이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동정 련쇄 자살을 하며 분사(焚死)와 같은 참혹한 수단으로 하는 것 등이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전하는 데 의하면 1964년 4월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죽림동에서 사는 리 모 녀성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한 가족 3 명이 모두 독약을 먹고 집단 자살하였으며 강원도 녕월군 북면에 사는 리 모는 부화한 생활 끝에 비관하던 나머지 음독 자살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략탈 정책에 의하여 생활고에 쪼들려 죽고 미군 양키에게 릉욕 당한 것이 분해 죽고, 미제가 퍼뜨린 소설과 영화를 보고 거기에 오염되여 비관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져 죽는다. 어쨌든 남조선에서 자살이 성행하는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들이 침습시킨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이다.

1962년 2월에 서울시 내 모 녀학교 학생 3 명이 까뮤의 《전락》, 《이방인》과 같은 허무주의 소설을 탐독한 나머지 《우리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지나지 않는다》(《실화》, 1962년 6월 호)고 비관하면서 련쇄적으로 음독 자살을 하였다.

지난 해 서울 모 대학에서 20 대 전의 신입생 450 명의 《사고 실태》를 조사한 데 의하면 그들 중

52%가 자살을 기도한 바 있다고 하였다(《녀원》, 1962년 12월 호).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 자살이 하나의 류행병으로까지 된 것은 견디기 어려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미국식 생활 양식에 오염되여 죽음을 례찬하며 그러한 탁류 속에 자신을 잠그어 버리거나 자살로써 《항거》하거나 하는 데 기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 도당은 자살을 《울적한 심리와 정신 상태》가 초래한 병'적 현상이라고 하면서 《자살 예방 상담소》를 한강반에 설치하였으며 자살 예방 병원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살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괴뢰 통치배들의 학정과 세기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이 빚어 낸 비극이라는 것을 은폐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리용하고 있다.

2) 미국식 생활 양식이 정신, 문화와 언어 생활에 미친 후과

ㄱ. 정신, 문화 생활의 혼란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조선 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옳바른 문예 정책에 의하여 민족 문화는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당의 해'발 아래 사는 인민들의 무한한 행복, 혁신과 기적으로 들끓고 있는 천리마의 현실, 근로자들의 한량 없이 높고 깊은 사상 의식과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인민의 예술로서 일대 개화기에 처하여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인민 대중의 정신, 문화 생활에까지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것이 류포되고 있다.

남조선 서적 시장에 쌓여 있는 문예 작품의 절대 다수는 색정주의와 쾌락, 허무주의, 인간 증오 등을 내용으로 한 것들이며 영화관들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남녀 간의 추잡한 관계, 자살, 《깽》, 살인, 강도 등을 《용감한 영웅으로》 묘사한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끌어 들여 온 색정적이며 퇴폐적인 것들이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을 극도로 부패 타락시켜 그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자국 내에서도 상영이 금지되여 있는 퇴폐적인 라체 장면 영화를 강제 투입하여 남조선 각지 영화관들에서 상영케 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10 대 소년들이 흉기를 휴대하고 승용차를 습격하며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과 같은 범죄 행위는 주로 폭력과 사형(私刑), 음탕을 찬양

하는 《서부 활극》을 보고 본 딴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 영화 상영의 죄악적 후과에 격분을 금치 못한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영화 상영을 금지할 것을 강경히 요구해 나섰다.

그러나 박 정희 도당은 퇴폐적인 외국 영화의 영향 하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된 《영화 륜리 전국 위원회》도 저들의 반동적 문예 정책 추구에 거슬린다고 하여 강압적으로 해산시키고 미국 영화를 그 대로 모방하거나 그 내용을 개작한 것에 불과한 영화들을 상영케 하고 있다.

일례로 《슬픔은 그대 가슴에》, 《정조를 빼앗긴 처녀》, 《녀인숙(女人宿)》, 《사랑의 십자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재혼》 등 소위 국산 영화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라체를 로출시키는 미국 영화와 키다툼이라도 하듯이 《벌거벗은 녀자의 라체를 드러내 놓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의 력사를 내용으로 한 〈바보 온달〉이나 〈원술랑(元述郞)〉까지 라체 장면》(《신사조》, 1962년 6 호)으로 내놓고 있다.

지어 그들은 녀성의 완전한 라체를 드러내 놓게 하고 사실적인 키스 장면을 보여 주고 있는 《애수에 젖은 토요일》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대담하게 신경지를 개척한 키스 장면과 라체 장면은 영화사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이다.》(《영화 개설문》)라고까지 례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남조선 각지에서 상영되는 영화에는 모녀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녀인》, 전 남편과 새 남편을 같은 지붕 밑에서 재우고 있는 《목노 주점》, 죽은 아들의 안해를 겁탈하는 《열'쇠 구멍》, 남편을 죽인 원쑤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옥문》과 같은 추잡한 것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고려장(高麗葬)》이라는 영화는 온갖 야만과 인간 도살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모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이 영화의 내용은 금이라는 과부가 아들 구룡이를 데리고 십 형제를 가진 홀아비에게 재가를 간다. 무당은 십 형제가 구룡이에게 살해되리라고 예언한다. 십 형제는 구룡이를 독사에게 물리게 하고 금이의 모자를 쫓아 낸다. 그 때부터 12 년 후에 구룡이는 벙어리 처녀와 결혼을 하나 십 형제가 벙어리를 릉욕하게 되자 구룡이는 벙어리를 죽여 버린다. 23 년 후에 십 형제는 기근이 왔다고 해서 늙은 자기 아버지를 산에 내다 버리며 구룡이는 기우제를 지내기 위하여 자기 어머니를 독수리 앞에 제물로 바쳐 죽인다. 십 형제가 구룡이의 애인인 간난이를 살해하자 구룡이는 십 형제를 복수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나가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와 같이 영화 《고려장》은 살모, 생매장, 간통, 복수, 집단 살인과 같은 패륜 패덕을 가장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데 박 정희 도당은 이

것을 전후 영화계의 《최대 수확물》이라고 떠벌이고 있다.

오늘 남조선 각지의 영화관들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은 미국이나 일본 영화의 《번안물(내용 개작한 것)》에 불과하며 값 싼 눈물과 저속한 웃음을 팔아 인민들을 우롱하는 것들이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미국 쟈즈와 함께 《트위스트》, 《다무래》 등 《땐스(무용)》가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판을 치고 있다.

남조선 음악계에서 쟈즈 음악은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서 인민 대중의 생활 속에 깊이 침투되여 사람들을 광란적인 감각의 세계에로 이끌어 가면서 건전한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

쟈즈 음악은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건전한 음악 선률을 말살하고 민족 음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억제하면서 강력한 타악기의 기형적인 리즘을 엇붙여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그들로 하여금 광란적인 색정의 세계에 도취하게 하며 안일, 부화, 무기력케 하는 데 리용되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함께 침습된 쟈즈는 처음에 《탱고》, 《부르스》, 《룸바》, 《맘보》, 《부기》, 《차차차》, 《록클론》, 《로카비리》 등 괴상한 이름으로 류행되던 것이 최근에는 더 《격동적》인 《트위스트》, 《림보록》, 《보사보사》 같은 퇴폐적인 《땐스》와 결합되여 광란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쟈즈 음악을 모방하여 《국산 맘보》, 《국산 차차차》와 우리 나라 민요를 쟈즈화한 《아리랑 맘보》, 《도라지 맘보》, 《도라지 부기》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 구역질 나는 것들이 라지오, 레코드, 출판물 등을 통하여 대중 속에 부식되고 있으며 《쑈》를 통하여 저속한 춤, 만담 등과 같이 결합되여 보급되고 있다.

지어는 우리의 아름다운 민요를 얼뜨기 영어로 번역하여 부르는가 하면 판소리를 피아노로 반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에는 쟈즈화된 《국산 류행가》 뿐 아니라 《노란 샤쯔의 사나이》, 《태양은 가득히》, 《그린필드》와 같은 색정적인 외국 영화의 주제가를 비롯하여 퇴페적인 노래가 류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이것을 방송에서까지 불어 대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류행가 《우에오 미데 아루께(우를 쳐다 보고 걸어라)》를 조선말로 레코드화하여 다방에서 틀어 대고 있다(《조선 일보》, 1963년 12월 3일).

쟈즈 음악과 함께 청년들이 추는 《댄스》 춤도 이에 못지 않게 퇴페적이다.

《맘보》, 《록클론》, 《트위스트》, 《다무래》니 하는 춤들은 정형(定形)의 리즘이나 률동이 있는 것도 아니며 발작증을. 일으킨 미친개처럼 제멋 대로 돌

아 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책상이나 물건들로 사람들을 마구 패는 따위의 동작의 련속이다.

이러한 춤들이 《쏘》, 《맨스홀》, 《빠》에서는 물론 학교에서와 가정, 심지어는 길'가에서까지 란무되고 있다.

쟈즈 음악과 춤은 남조선 청소년들 뿐 아니라 유부녀자들까지 꾀여 음탕과 범죄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수단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퇴폐적인 노래와 춤이 판을 치는 반면에 아름답고 우아한 민족 고유의 《국악(민족악)》이나 농악, 탈춤 같은 것은 《전세기의 유물》로서 천시 당하고 있거나 《현대화》의 명목으로 《쟈즈》나 《트위스트》에 용해되여 버리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청소년들 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퇴폐적인 만화를 출판케 하여 순진한 청소년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그들이 출판하고 있는 만화책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모두가 살인 강도를 《영웅》으로 묘사했거나 잔인한 계모의 학대와 생활고에 견디다 못해 자살을 기도하는 청소년들을 찬양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지어는 라체 장면까지 서슴지 않고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부화하고 퇴폐적인 만화책들이 《세책점(貰冊店)》을 통하여 남조선 청소년들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그의 건전한 사고력과 정서를 마비시키는 데 리용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출판물들도 남조선 인민들에게 색정, 허무, 노예 근성과 《반공》 사상을 부식시키기 위한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아리랑》, 《명랑》, 《녀성계》, 《실화》, 《진상》과 같은 대중 잡지는 거의 전부가 치정 실화나 소설, 만화, 반라체 사진, 상품 광고, 매약 광고와 같은 것으로 전체 지면을 채우고 있다.

특히 문학 예술 서적들에는 남조선 어용 작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패륜아》, 《늙은 것도 싫은데》, 《안해의 랑만》, 《태양의 계곡》, 《대리 련애》, 《자매의 애욕》, 《안해》와 같은 퇴폐적인 소설들이 게재되고 있는데 제목만 보아도 이 작품들이 얼마나 패륜 패덕적인 것인가를 능히 집작할 수 있다.

《패륜아》는 한 회사의 사장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젊은 첩과 부화한 생활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안해의 랑만》에는 아버지, 어머니, 딸이 제각기 호상 기만하면서 일시적 향락을 추구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기타 작품들도 모두 이와 같은 말세기적인 색정 세계를 묘사한 것들이다.

그 뿐 아니라 남조선에서는 《문화적 오락》이라는 미명 하에 도박적 성질을 띤 《빠찡고》, 골프, 트럼프 같은 것들이 류행하는 반면에 씨름, 그네, 널뛰기, 활쏘기와 같은 민족 경기는 배척 당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체육 스포츠도 기업화하여 《살인 권투》에 기승을 올리는가 하면 1964년 3월

1일에는 서울 장충 체육관에서 빤쯔와 런닝그 바람에 20세 안팎의 처녀들의 권투 경기까지 조직케 하였다. 이것은 미군 양키들과 괴뢰 도당의 저속한 취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였다. 그 외에도 그들은 녀자 야구단과 개를 일본에서 《초청》해다 시합을 시키는 추잡한 놀음까지 벌려 놓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는 퇴폐적인 문화, 깡통 문화, 왜색 문화가 범람하여 인민들의 정신 문화 생활에 적지 않은 해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학열에 불 타 있어야 할 청년 학생들이 각종 《유흥장》에 들어 박여서 추잡한 음악과 춤에 도취되여 허영과 무기력 속에서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랑비하는 일이 늘어 가고 있다.

196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적발된 것만 하여도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와서는 극장 《음악 감상실》, 《캬바레》, 《빠》에 파묻힌 학생은 무려 2만 3,000여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가슴 아픈 현상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1962년 6월 27일)까지도 《저속한 쟈즈에 심취되여 허울 좋은 음악 감상실이나 〈딴따라쑈〉에 들어 박여 있는 나어린 학생들을 보면 한심하다.… 〈트위스트〉 춤에 도취하여 아무 곳에서나 노래 부르고 공간만 있으면 마구 사지를 꼬고 비틀면서 란무하는 일군(一群)의 청소년 학도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였다.

이렇게 타락한 풍조는 나 어린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 내 모 중학교 녀교원이 학생들의 복장검사를 한 결과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녀배우 사진, 누나, 동생, 친구라는 구실이 붙은 녀자의 사진, 소설책, 타 학교의 모표와 빠찌, 상급 학년의 학년 표식, 칼, 련애 편지, 담배 등》(《녀원》, 1962년 1호)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의 적지 않는 청소년들은 학원을 모리화, 파쑈화, 군사화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책동에 의하여 학교에서 쫓겨 나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넝마 주이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무지와 몽매 속에 파묻혀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용이하게 퍼뜨리기 위하여 미제는 남조선에 각종 종교 단체를 투입하고 있다.

그 결과 남조선에는 무지, 몽매한 미신 행위가 늘어 나고 있으며 각종 반동적인 종교가 더욱 번성해 가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배움의 길을 극력 억제하면서 그들에게 숭미 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무지 몽매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 결과 남조선 출판물이 축소하여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에는 문맹자가 1962년 현재 345

만 5,000 명이나 있었다(《국제 신보》, 1962년 7월 7일).

《문화》 생활의 중심이라고 하는 서울시 내에서 신문을 읽는 집이 7.4%에 불과하니 농촌 사정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충청 남도의 자연 부락 5,400 개 가운데 2,400 개 부락은 신문 한 부도 들어 가지 않으며 1,200 부락에는 라지오는 물론 유선 방송 시설조차 없는(《한국 일보》, 1962년 2월 3일) 형편이다.

농촌에는 머슴, 고농, 고지, 등지기 등 전세기의 유습이 그냥 남아 있으며 농민들은 봉건적 착취와 신분적 억압에 신음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종중(宗中) 조직과 반상(班常) 관념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적지 않은 농민들은 여전히 봉건적 신분 제도의 구속을 받고 있다. 종친회(宗親會) 간판이 곳곳에 나붙고 있으며 김 모라는 자는 《부통령 선거》 당시 《종중의 지지를 얻으면 당선이 문제 없다.》고 하면서 《문벌 관념》을 선동하기까지 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로력 녀성의 대부분이 로동에 참가하지 못 하고 무권리와 봉건 도덕의 질곡 밑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민며느리, 데릴사위 풍습도 아직 남아 있다.

미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한 측면인 몽매주의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설교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종교와 미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 악질적인 종교와 미신은 인민들의 정신 생활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남반부에서 착취와 압박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허덕이는 인민들을 무마하며 그들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마취제로 종교를 리용하고 있다.

기독교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조선에 침습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는바 교회는 그들이 퍼뜨린 사치, 부화, 련애의 매개 장소로 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약 738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악질 상층 종교인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신업자들에게 기만되여 재물을 략탈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노예화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조종에 의하여 해방 후 남조선에서 지배적인 종교로 되였다. 교회 조직과 교회 단체들은 모두 미국식으로 재편성되였으며 이 종교 기관, 단체들은 미국 선교사들과 그들이 재교육한 교직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남조선에는 《태극도》, 《통일교》 등의 류사(類似) 종교 단체들만도 24 개나 있는데 이 단체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몽매한 행동으로 대중을 기만 우롱하고 있다.

전라 북도 금제군에 있는 《룡화교》의 교주 서(徐) 모(72 세)는 《미륵불》이라고 자칭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여 막대한 재산을 략탈하였을 뿐 아니라 《3

선녀》라는 명목으로 나 어린 시녀 8명을 끼여 가지고 음란 속에 잠겨 있었다. 《무형교》의 조작자들은 공주 부근에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무고한 인민들을 무수히 유인하여 그들의 식량까지 강탈하고는 그들에게 단식을 강요하여 19명을 사망케 하였다.

무당, 점, 관상 보기, 풍수, 사주 보기, 독경 등 각종 미신업자들은 남조선 도처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실업자, 빈민, 환자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수법으로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는 그들에게서 금품을 빼앗아 내고 있다.

서울의 무당들은 굿 한 번에 최하 5,000 원에서 최고 2만 원을 받아 먹고 있으며 부산시에는 미신 업자들이 병원에 종사하는 418명의 의사 수보다 배나 더 많다. 그들은 하루에 평균 8만 원이라는 돈을 인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앗아 내고 있다.

이러한 미신을 미 제국주의자들이 계속 보존 장려하는 것은 저들의 식민지 통치와 미국식 생활 양식이 빚어 낸 사회악과 부패 타락을 은폐하며 저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ㄴ. 언어 생활의 혼란

언어는 사람들의 교제의 수단이며 사유의 외피이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거칠고 혼란한 사회에

서는 언어도 거칠어지고 혼란에 빠진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략탈 정책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인심의 불안, 야비화 등을 반영하여 숱한 외래어, 은어(隱語), 욕된 말, 야비한 말, 독기 서린 말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부드럽고 아름다운 조선말은 짓밟히고 있다.

미제는 영어로 말하는 민족이 우월하며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반동적인 인종론을 류포시키면서 조선말을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할 것을 지시하고 이것을 관청과 학교 등 공’적 기관에서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 회화에서도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이리 하여 괴뢰 통치 기관에서나 교육 문화 기관들에서나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화되다 싶이 되여 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소위 유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생큐》, 《미스터》 《헬로!》, 《노》, 《오케》와 같은 말은 일상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어휘로 되였으며 《외국어 시험도 아닌 국가 시험에 순 외국어로 문제를 제시하고 답변할 것을 강요하고도 태연한 대학 교수가 있는가 하면 외국 사람이라면 덮어 놓고 쩔쩔 매는 기풍이》(《사상

계》, 1961년 11월 호) 퍼지고 있다.

그 외에도 《무드적》이나 《코믹한》과 같은 우리 조선어 어휘 구성 원칙으로서는 리해할 수 없는 외국어 범벅이를 되는 대로 사용하여 아름다운 조선어를 더럽히고 있다.

《한국 일보》는 영어'병에 걸린 남조선의 적지 않은 청년들의 한심한 풍조에 대하여 《얼마 전에 한 달 동안 외국에 갔다 온 한 녀학생이 비행장에 내리더니 려행 중에 혀가 꼬부라졌다고 〈웰…〉 하면서 군데데 영어로 무어라고 씨부리더라》(1962년 9월 29일)고 야유하였다.

일상 언어 생활에서 뿐 아니라 간판 약품명, 광고, 다방 이름 같은 것도 모두 영어로 부르고 있다. 다방, 빠, 캬바레의 이름으로는 흔히 《하와이》 《쌘프란씨스코》, 《텍싸스》와 같은 미국 지명을 쓰거나 《에덴》, 《시온》과 같은 종교적 명칭을 달지 않고서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 할 정도로 되였다.

상품명에 영어를 쓰지 않고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 하는 류행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1962년 9월 29일)까지 《사람의 건강이나 때로는 생명마저도 좌우할 수 있는 약품의 포장을 보면 령락없이 국산품인데 약 이름, 설명 등이 온통 꼬부랑 글'자다. 통조림, 화장품 따위들도 마찬가지이니 영어깨나 몰라서야 눈 뜬 장님되기 꼭 알맞다.》고 썼다.

배우나 접객업자들과 같은 인기 직업자들 사이

에서는 《커니. 홍》, 《패티. 김》, 《후랑키. 손》이라고 하는 얼뜨기 이름이 류행하며 심지어 보통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이름을 《메리》니 《재키》니 하는 외국 이름을 지어 부르는 한심한 일도 흔히 있다.

남조선에는 《그녀》라는 말이 녀성들을 부르는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이런 말은 조선말에는 없는 영어를 직역한 초라하기 그지 없는 비속한 말이다. 더우기 한심한 것은 조선어를 영어투로 발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망국적 풍조에 대하여 남조선의 《국제신보》까지도 《거리와 다방과 그리고 술'집에는 보통 속어, 비어(卑語)를 그 대로 멋이 있는듯이 막 쓰고 있으며 외국인도 안 쓰는 반이국적인 엉터리 외국어를 아직도 장한듯이 뇌까리는 허영 같은 것은 외국인의 수치를 사기 전에 동포의 비위를 거슬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1962년 8월 2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에 심한 혼란을 조성한 은어의 범람도 미국식 생활 양식이 침습한 후과이다.

은어는 특수한 계층에서 부정, 부패, 범죄 등을 일상으로 하여 생긴 비정상적인 언어다.

오늘 남조선에 범람하고 있는 은어는 남조선 사회 특히 통치 지배층의 부패하고 퇴페적인 생활을 그 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선 남조선에서는 미제 침략자들의 강점에 뒤

따라 미군 양키들이 보통 사용하는 《하로》, 《오케이》, 《까뗍》 등 하는 말이 류행되여 오늘은 통용어로 되여 버렸다.

깡패가 횡행함에 따라 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쎈팀 해—호주머니 뒤지라는 뜻》, 《비온다—순경이 온다는 뜻》, 《쬬다—병신이라는 뜻》과 같은 종래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망측한 말들이 뒤'골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에서도 보통 튀여 나올 정도로 일반화되였다.

사회 정치 생활의 부패와 혼란을 반영한 은어와 《익살》이 도를 지나쳐 어디에서나 마구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에서 언어 생활이 극도로 혼란되여 있다. 그리고 순결한 우리 말이 엉터리 영어, 은어, 속어, 비어, 방언이 뒤섞인 범벅이 되였고 악담과 독기 서린 말들이 통속화해 버린 것은 극도로 혼란된 남조선 사회의 일면을 반영한 것이다.

3) 미국식 생활 양식이 물질 문화 생활에 미친 후과

미국 상품의 대량적 투입과 미국식 생활 양식이 침습되여 남조선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치고 있으며 아름답고 건전했던 우리 인민의 전래의 의식주 생활의 전통도 유린 말살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입는 옷은 남조선에서 직물 공업이 전'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여 있으며 양키들이 입은 옷차림을 모방하는 풍조가 휩쓸게 된 데서 부화하고 기형적인 것으로 되였다.

옷감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며 양풍이 휩쓸고 있는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생활과는 어울리지 않게 양장을 하는 것이 류행하게 되였다. 도시 녀성들 속에서는 얼뜨기 양장이 큰 류행으로 되여 심지어는 40 대 50 대 녀성들까지 양장을 하며 우리 조선 녀성들이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미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추잡하게 하고 다닌다.

바지'가랑이를 너무 좁혀서 체구의 균형과 안정감을 지극히 손상시키며 육체의 륜곽을 드러내 보이게 만든 《맘보 바지》가 류행의 일대 선풍을 일으켜 남자는 물론 녀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입고 있다.

옷의 색갈과 무늬도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란잡하다.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 자연 환경에 어울리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색의 옷을 애용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휩쓴 양풍의 물'결은 남녀 가릴 것 없이 옷치장을 온통 원색으로 물'들게 하였고 그것이 생활 환경의 색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였다.

이러한 자극적인 원색풍을 조장한 것은 미국의

《원조》 물자의 얼룩덜룩한 색갈 옷이 들어 와 류행하게 되였기 때문이다.

색조와 무늬에 대한 미감의 혼란은 어린애도 아닌 중년 부인들이 색동을 입고 다니며 얼럭덜럭하게 만든 옷감을 걸치고 다니는 풍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성인들이 색동을 입고 다니는 악취미에 대하여 남조선 잡지 《녀원》은 《어른 부인네가 색동 저고리를 입는 모습이란 판수나 무당 같다.》1963년 2월 호)고 개탄하였다.

양풍은 우리의 전통적인 옷 모양과 아름다운 멋을 손상시키고 있다. 남조선에는 《후레야》, 《라이트》, 《차차차》, 《파상형》이요 하는 《개량형》 치마가 류행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조선 치마의 단정한 선조미를 완전히 파괴하고 조선 녀성들의 체구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보기에도 흉칙한 것들이다.

녀자들의 저고리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녀자옷의 아름다움을 지극히 손상시키는 양장과 얼뜨기 변형이 생겨 났다. 그러한 변형에서 대표적인 것은 나비 저고리와 조끼식 드레스이다. 나비 저고리는 서양의 드레스를 본 따서 젖가슴 아래 한 복판에다가 넓은 옷고름을 나비마냥 매 놓은 것인데 이것은 《저고리도 아니고 서양의 드레스도 아닌 그야 말로 서양식 저고리 치마》(《녀원》, 1963년 2월 호)라고 할 정도로 야비하다.

그 외에도 남조선에서는 저속한 취미에서 오는

자질구레한 치례를 하여 만든 무대복 같은 것을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기까지 한다.

일부 청년 학생들은 결혼식 때나 대학 졸업식 때에 미국 류행을 따라 《왕관》이나 네 귀가 뾰족한 사각모를 써 봐야 흡족해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군사 깡패들이 옷차림을 간소화한다는 구실 밑에 우리 인민의 전통과 고유한 미를 무시하고 《미국식 옷차림》을 모방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개량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개량복》의 실용성과 멋을 완전히 무시한 데 대하여 남조선의 한 녀성은 《이것이 실제 리용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는 재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실제 포플린 두 폭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녀원》, 1963년 2월 호)라고 비난하였다.

군사 깡패들은 일제 때의 《국민복》의 본을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어 낸 《재건복》, 《신생활복》이라는 것을 인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인하여 부화하고 기형적인 옷차림이 류행되고 있으며 기후와 절기, 년령에 맞는 조선 민족 고유의 옷차림이 란폭하게 유린 말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미국식》의 몸치례와 함께 괴상망측한 화장이 류행되고 있다.

박하분과 동백 기름으로 치장하면 우리 나라 녀성들의 우아한 몸 단장은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고

짙은 화장법이 류행되여 《도장하고 나선 녀자의 얼굴은 실패작 유화가 아니면 끔찍한 광대라고 할 수 밖에 없을》(《녀원》, 1962년 7월 호)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잡한 풍조가 미국 영화를 통하여 전파되는 데 대하여 남조선의 한 잡지는 《〈헐리웃〉 영화의 범람을 타고 넘나드는 류행 바람은 오래도록 많은 녀성들로 하여금 흡사 몽유병(夢遊病) 환자처럼 미와 행복의 기준을 영사막 속에서 찾아 헤매게》(《녀원》, 1962년 7월 호) 하였다고 썼다.

몸치장을 기형화하는 데서 가장 심한 류행병은 무엇보다도 머리 트는 모양을 괴상하게 하는 것이다. 새 새끼가 날려고 퍼덕퍼덕하는 모습 같다는 《훌랩퍼》,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정열을 상징했다는 《정열의 라인》, 까투리 꼬리를 몽땅 잘라 놓은 것 같은 《백조》를 비롯하여 《전진》, 《화성》, 《우주》, 《트위스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해괴 망측한 모양들로 머리를 트는 것이 류행하고 있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정형 수술이라는 것이 류행하여 머리칼을 노랗게 물 들이고 눈'두덩을 쌍거풀지게 하며 코'마루에 날을 세우는 등 육체를 인공적으로 변모시키는 일이 늘어 나고 있다. 외모를 단정히 하며 육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우리 겨레가 이와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식 생활 양식이 끼친 후과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실증해 준다.

이러한 퇴폐적인 풍조가 전'적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한 잡지는 《자기 것이 남의 것에 못 해 보이고, 자기 자신의 출생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머리칼도 노랗고, 눈도 쌍거풀이고, 코도 높고 앞가슴도 불쑥하고 했으면 해서 온갖 약품과 수술과 덧붙임을 다 마련해서 양인종이 되려고 노력》(《녀원》, 1963년 2월 호)하고 있다고 통탄하였다.

정형 수술에 못지 않게 망측한 풍조는 다른 사람 앞에서 살'결을 드러내 보이는 《로출증》이다. 이에 대해서 남조선 잡지는 《자기 육체가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가장 비천한 수치로 알았던 이 땅의 녀성들은》 미제 침략군이 들어 온 이후 《곡선미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더욱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 온 경박한 외화(外畵)와 류행의 선동에 자극된 일부 몰지각한 녀성들은 로출의 정도가 많을수록 시대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껴 사회의 빈축을 받기에 이르렀고 때로는 많은 성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로출을 일종의 병세라 하는 전제 밑에 〈로출증〉이라는 말이 생겼다.》(《국제 신보》, 1962년 8월 15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남조선에서는 양담배와 커피 등 인민들의 식생활과는 인연도 없는 기호품이 다량 수입되여 괴뢰 도당과 그 졸개들의 부화 방탕한 생활

에 탕진되고 있다.

미제는 《원조》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매년 60억 환에 해당하는 양담배를 강제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조선의 각종 유흥장들에서 소비되고 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략탈 정책으로 인하여 먹을래야 먹을 것 없고 살래야 살'길이 없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참극이 빚어지고 있는 반면에 리면에서는 이런 기호품이 다량 수입되여 탕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남조선의 반동적인 신문까지도 양담배를 태우는 것은 《국가를 태우는 것》이라고까지 조소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는 매년 53억 환에 달하는 커피가 수입되여 부화한 생활의 자극제로 소비되고 있으며 이 밖에 고급 화장품, 피임 약품, 장신구와 같은 사치품이 수입되여 허영에 들뜬 사람들의 랑비 의식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기호 식성이 기형적으로 발달한 나머지 마약을 들이키고 순간적인 쾌락에 탐익하는 범죄가 격증하고 있다.

남조선 괴뢰 도당은 건축에 있어서도 조선 인민의 생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퇴페적이고 기형적인 미국식 건물을 그 대로 모방하여 되는 대로 건설하고 있다.

부산에 건설한다는 《자유의 탑》은 바로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녀신》을 그 대로 본 딴 것이다.

개인 주택들도 《문화 생활》이라는 이름 밑에 조

선 주택의 고유미를 상실하게 되였다. 개인 주택이 실'속 없이 양풍화하는 데 대하여 남조선의 한 건축가는 《한국의 고대 건축은 참 아름답고, 한국의 독특한 고유미를 지니고 있었는 데 반하여 요새 지어지는 건물들은 한국의 특색이 거의 없고 단순히 외국의 겉모양만 모방하고 있다.》(《녀원》, 1963년 2월 호)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의 변두리에는 게딱지 같은 판자'집, 토굴'집, 거적집, 움'집 등 도저히 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남조선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주민들의 주택 수요는 54.2% 밖에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랜 주택 지구인 양동 지대 같은 데서는 전체 주민 가옥의 81%가 토굴'집이고 15.8%가 판자'집인 데다 이것들이 모두 건평 2 평 미만의 협소한 건물이다. 이 곳 주민들은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나 여섯 자 평방 한 간 방에 2.6 인이 살고 있는 형편이다(《사상계》, 1960년 8월 호).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도당은 최근에만 하여도 《무허가 판자'집 철거》란 간판 밑에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무려 수백여 호에 달하는 인민들의 주택을 경찰까지 동원하여 강제 철거하고 인민들을 거리에 내쫓고 있다.

미제와 그의 충실한 주구 박 정희 도당은 울타리도 변소도 없는 오막살이 농촌 주택을 개선한다고

하여 최근 《주택 개량》 운동이라는 것을 고창하면서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시키고 있으나 아무러한 물질적 재정적 보장도 없는 조건에서 남조선 농촌 주택이 개선될 가망은 하나도 없다.

미제 침략자들은 군사 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유서 깊은 유물들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인하여 퇴폐적이고 부화 방탕한 양풍이 휩쓸고 있으며 우리 인민이 간직하고 있는 조상 전래의 아름답고 건전한 풍모가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고 미풍 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이러한 사태가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에 의하여 초래된 후과라는 것을 자기들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류포시키는 미제와 괴뢰 도당을 반대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다.

4)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우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미국식 생활 양식의 부식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전례 없는 민생고와 노예적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은 여지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남조선 사회에서는 미국 양키들과 박 정희 도당에 의하여 깽, 살인, 강도, 사기, 협잡 등의 사회악이 더욱 늘어 나고 있으며 세기말적인 패덕 패륜이 조장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 생활에서는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이 지배하며 민족적인 모든 것은 멸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김 일성 선집, 제 4 권, 1960년 판, 514～515 페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의 남조선 현실에 대하여 격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남조선 인민들은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려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괴뢰 도당을 반대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또 용감히 투쟁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우선 미제와 괴뢰 통치배들이 청소년들에게 온갖 패덕과 범죄를 강요하는 영화의 상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부패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퍼뜨리는 양키 영화

를 반대하여 1960년 10월 26일 남조선 인민들과 학부형들은 미국 영화를 위시하여 외국 영화 상영 금지는 물론 조선 인민의 고유한 미풍 량속을 해치거나 학생 교육에 지장이 되는 《국산 영화》도 엄중히 단속할 것을 괴뢰 도당에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투쟁에 뒤'이어 남조선의 영화 및 무대 예술인 500여 명은 1960년 10월 28일 집회를 가지고 극장, 영화관들에서 미풍 량속을 더럽히며 청소년 교육에 해독을 끼치는 일체 영화를 일소할 것을 결의하고 미제와 괴뢰 도당을 상대로 투쟁하였다.

이와 같은 인민들의 투쟁에 편승하여 남조선에서 발간되는 《평화 신문》까지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륜리 규정을 벗어 나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우리 나라 국민에게 도덕적 악영향을 가져 온다든가 하는 외국 영화가 범람하게 된다면 이것은 서슴지 않고 반민족적인 것이라고 락인 찍고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1963년 1월 12일 《동아 일보》는 인민들의 투쟁 목소리를 반영하여 《하등 문화적 가치 없는 서부 활극이나 깽 영화들은 우리 사회에 소개할 리유가 있는가…》고 썼다.

영화 《오발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선의 량심적인 영화인들은 남조선 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구원의 손'길을 공화국 북반부에서 찾는 인민들

의 지향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그들의 민족적 각성과 계급 의식을 제고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영화를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음악, 무용, 그림 등 기타 문예 분야와 사상 의식 분야에 침습된 양키 문화를 반대하여서도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애국적인 청년 학생들과 선진적인 지식인들은 우리의 고유한 민족 문화와 미풍 량속이 오늘과 같이 유린되게 된 것은 반동적인 외래 문화를 수입한 괴뢰 도당의 책동에 있다는 것을 규탄하면서 이를 반대 배격하고 있다.

문학 평론가 리 모는 남조선이 《문화적 식민지》로 전락되게 된 것은 해방 후 력대 괴뢰 도당들이 미국의 《깡통 문화》, 《쓰레기 문화》를 남조선에 끌어 들여 《알맹이 없는 박제(剝製) 문화의 풍토를 만든 데 있다.》고 개탄하면서 《양키 문화》를 반대 배격하였다.

그 뿐 아니라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남조선 문학 예술인들은 남조선에서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를 때마다 미제와 괴뢰 도당에 의하여 빚어진 사회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폭로로 일관된 《폭소》, 《량심》, 《여우》, 《백의의 수기》, 《월광곡》, 《7 인의 녀포로》, 《광야에 서서》와 같은 작품들을 써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퇴폐적인 양풍, 왜풍 문화의 2중적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건전한 물질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건축가 안 모는 《주택의 한국적 현대화》라는 글에서 《우리는 우선 정신 생활에서 사대 사상이나 의타심을 버리고 우리의 자주성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선진 국가의 문화를 수입함에 있어서도 이것을 한국적인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그리 하여 현대화하는 우리의 주생활(住生活) 속에도 자연히 한국적인 향기가 감돌》(《녀원》, 1963년 2월 호)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녀성은 조선옷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나라의 전통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존중하여야 된다는 책임이야 없겠지만 무조건 배격한다는 것은 마치 자기 부모를 배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본다. 전통을 존중하고 살아나가는 데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애국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본다.》(《녀원》, 1963년 2월 호)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퇴페적이며 세기말적인 생활 양식을 반대하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물질 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또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남조선 인민들 속에 부식시키려는 미제와 괴뢰 도당의 책동과 그들의 부정 부패를 반대하는 데서도 표현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자인 조선어를 말살하기 위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려는 미제와 리 승만 괴뢰 도당의 《한글 간소화》 책동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또한 그들은 《반공》, 숭미 사상을 고취하는 식민지 노예 교육과 우리 민족의 고귀한 문화 유물을 파괴 략탈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여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투쟁은 4월 인민 봉기를 계기로 더욱 활발해졌는바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청산하는 투쟁을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완강하게 전개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 로동자, 농민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청년 학생들은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서 신생활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퍼뜨림에 있어서 매개물로 되고 있는 침략적인 미제의 《원조》와 잉여 상품 강매 책동을 반대하며 괴뢰 통치배들의 부화

방탕한 사치 생활을 반대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 투쟁이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사회적 부패와 범죄의 온상으로 되여 있는 각종 유흥장을 찾아 다니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에 오염되여 부화 방탕한 생활에 정신이 팔린 괴뢰 지배층들을 규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치품을 빼앗아 불 태워 버렸다.

이러한 정의의 투쟁에 대하여 서울시 《경찰국장》이 《반미 감정을 격발시키는 일이라》고 위협하여 나섰으나 1960년 7월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양담배 2,000 갑을 세종로 네거리에서 불 살라 버렸다. 이것을 계기로 대구시, 부산시, 인천시를 비롯한 남조선 도처에서 학생들은 《양담배를 버리고 국산 담배를 애용하자》, 《4.19 정신을 받들어 외래품을 배격하라》는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0년 9월 24일 서울시 내 중고등 학교 학생 6,000 명은 서울 운동장에 모여 신생활 계몽대를 조직하고 새 생활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외래품 및 부패 생활 양식 배격》, 《외래품 배격하고 국산품 애호하자》, 《혁명 정신 받들어 새 생활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이러한 투쟁은 남조선 각지에 광범히 파급되였는바 134 개

군에서 학생 계몽대원들은 《빠》, 《캬바레》 등을 찾아 다니면서 그 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양담배와 화장품 등 외국 상품을 쓰지 말고 국산품을 애용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청년 학생들은 괴뢰 지배층이 인민의 고혈을 빨아서 부화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여 완강히 투쟁하였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로 조직된 신생활 계몽대 대원 약 300여 명은 1960년 9월 22일 괴뢰 《국회 의사당》 앞에 몰려 가 《국회》 의원들이 자동차를 타고 나타날 때마다 《두 다리 부러졌나, 네 다리 타지 말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그들이 관용 자동차를 사생활에 람용하는 것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국회》 의원들의 자동차를 압수까지 하였으며 국가 재산 횡령 죄로서 《사법 기관》에 고소하는 한편 그들을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같은 해 10월 11일에는 4월 인민 봉기 당시 부상 당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1만여 명 시민들의 지지 성원을 받으면서 괴뢰 《국회 의사당》 안으로 쳐들어 가 《의장》을 단상에서 끌어 내리고 부패한 생활에 물 젖은 《국회 의원들은 모두 의사당에서 물러 가라!》고 절규하면서 장 면 일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1961년 1월에 4월 혁명 불구 상이 동지회에 망라된 학생들은 외래 사치품을 배격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경찰들의 강력한 제지에도 굴함이 없이 시위를

단행하였다.

남조선 녀성들도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호응하여 양풍을 반대하며 새 생활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전국 녀성 단체 림시 련합회 회원들은 집회를 가지고 《우리는 국산품 애용으로 애국심을 발휘하자》, 《축첩자들에게 투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것을 실천할 데 대한 문제를 광범한 녀성들 속에 호소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이러한 투쟁은 《군사 정변》 후 박 정희 도당의 살인적인 테로 통치 하에서도 계속 완강히 전개되고 있다.

미제 《원조》의 본질을 생활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깨닫게 된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의 《원조》가 《국내 생산을 질식시키고 자립 경제를 좀 먹》는 《원조》이며 그것이 우리 나라의 미풍 량속을 파괴하며 대중 속에 사치, 무기력, 외세 의존을 조장한 매개물이라는 것을 폭로하면서 투쟁하였다.

이에 대하여 1963년 3월 23일 부 《부산 일보》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38억 딸라의 원조를 받았다.…그러나 해방 후 19 년이 흐르도록 자립 경제의 터전을 닦아 놓지 못 했다.

이 결과로 태여난 것이 원조 경제 체제 하에서 기형아처럼 생겨 난 수 많은 필요 이상의 령세 상업

과 실업자군, 사치성향(奢侈性向) 국민성 등등…심지어는 농업국으로 자처하는 우리가 매년 400만~500만 석의 식량 부족으로 해마다 식량 파동을 겪어야만 하는 꼴이 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원조》의 침략적 략탈적 본질과 그것이 전래의 미풍 량속을 파괴하고 있는 데 대하여 폭로하면서 투쟁하였다.

1960년에 미제의 사촉 하에 조작된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학생들의 줄기찬 각종 투쟁은 점차 반미, 반《정부》적 성격을 띠면서 전 인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60년 9~10월에 연세 대학교 학생들의 미제의 현지 사환'군들인 《총장 서리》 언더우드와 《재단 리사장》 싸우어를 축출하기 위한 투쟁, 1962년 6월에 미제 침략 군대의 만행을 규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거센 투쟁의 파도는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반미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였다.

특히 최근에 남조선 인민들은 박 정희 도당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후 미국식 생활 양식과 함께 왜풍까지 끌어 들여 온갖 부화 방탕한 생활을 벌려 놓고 있는 데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 하여 그것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그리 하여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매판 자본과 결

탁하여 배를 불리고 있는 《4 대 의옥》 사건을 비롯하여 《새로운 4 대 의옥》 사건과 같은 박 정희 도당의 부정 축재 내막을 폭로하는 성토회를 가지고 삐라를 뿌리며 시위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 잡지 《신사조》의 한 필자는 매국노들의 죄행을 비난하면서 《잘 사는 너희들끼리 질탕하게 노는 것을 시기하여 하는 말이 아니다. 전 국민이 잘 사는 옳바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최후의 한 푼까지도 귀중하게 씌여져야 할 경제 과잉(축적)이 온통 너희들만의 사치 생활을 위하여 탕진되여야 하고 부족한 외환(외화)이 너희들만의 향락을 위하여 랑비되여 오늘의 외화 부족을 가져 오고 경제 혼란을 조성시켜 국민의 빈곤을 더 일층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1964년 1월 호)라고 하였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1963년 10월에 《정치 토론회》를 가지고 여기에 김 종필을 호출해다 놓고 그들이 《외화 획득》의 가면 밑에 꾸며 낸 《워커 힐》 사건을 폭로하고 그에게 《워커 힐을 지어 결과적으로 밀매음과 도박을 조장시키게 되면 한강을 따라 번져가는 더러운 〈양키즘〉과 미국식 생활 양식이 국민 정서에 득(得)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을 들이대면서 이 일당이 벌려 놓은 부화 방탕한 생활을 면전에서 폭로하였다(《동아 일보》, 1963년 11월 6일).

오늘 남조선 학생들은 나라를 미제에 팔아 먹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일제까지 끌어 들이고 있는 박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를 분쇄하며 그들을 타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 투쟁의 불'길을 계속 높이고 있다.

1964년 3월에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뒤'이어 5월 20일에는 서울 대학교를 비롯한 서울시 내 10여 개 대학의 5,000여 명 학생들이 괴뢰 도당의 갖은 위협과 파쑈적인 폭압을 박차고 박 정희 도당의 부정 부패, 매국 배족적 행위를 분쇄하기 위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과 성토 대회를 거행한 후에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들은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잡는다고 약속하고 하루 아침에 고관 대작과 대기업의 사장이 된 젊은 장교들이 더욱 크고 더욱 추악한 신악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삐라를 뿌리고 박 정희 도당이 부르짖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저주, 규탄하는 《선언문》과 《조사(吊詞)》를 높이 웨치면서 시위에 떨쳐 나섰다.

25일에는 서울시 내 여러 대학 학생들이 난국 타개 학생 총 궐기 대회를 가지고 외세를 배격하며 박 정희 도당의 죄행을 규탄하는 33 개 대학의 명의로 된 시국 선언문, 구국 기조 선언문, 구국 비상 결의문, 행동 강령 등을 채택하고 시위에 떨쳐 나섰다.

이에 호응하여 부산, 대구, 춘천, 광주 등 남

조선 주요 도시의 대학들과, 중고등 학교 학생들도 박 정희 도당을 배격하는 시위에 떨쳐 나섰다. 그 후 남조선 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괴뢰 도당의 야만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였다.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은 불'길 속에서 더욱 단련되고 발전하고 있으며 미제와 박 정희 도당에게 돌려지는 예봉은 날을 따라 더욱 날카로와지고 있다.

6월 3일 서울시 내 대학생들은 구국 투쟁 궐기 대회를 진행한 후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인 폭압을 박차고 가두 시위를 단행하였다.

그들은 《박 정권은 하야하라》, 《민족 분렬을 일삼는 독재 정권 물러 가라》고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이에 뒤'이어 명확한 투쟁 목표와 옳은 전략 전술을 가지고 반《정부》 폭동에로까지 전환된 6. 3 봉기는 미제와 박 정희 괴뢰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의식을 비상히 높여 주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는 투쟁과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반미, 반《정부》 투쟁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과 결합되여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

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려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사상 문화 침략 정책이 여지 없이 파탄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김 일성 동지는 1964년 5월에 있은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제 5 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는 더욱더 심각한 위기에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힘도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애국적인 조선 청년들과 인민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은 종국적으로 파탄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입니다》(김 일성,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1964년 판, 30 폐지).

맺 는 말

우리는 벌써 해방 20 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 밑에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의 튼튼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화목한 대가정 속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조국의 산천과 사람들의 면모도 변하였으며 사회주의 새 생활의 토대 우에서 민족 문화와 예술도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다.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관철되고 천리마 운동이 더욱 힘 있게 발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 나고 있으며 남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증산 투쟁에서 날의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일어 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괴뢰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우심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는 더욱 가중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극

도로 비참한 처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한 강토 우에서 한 조상의 피'줄을 이은 남조선 인민들은 벌써 근 20 년 동안이나 미제의 식민지 예속 하에서 피눈물 나는 고난과 갖은 민족적 멸시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귀한 문화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량속이 여지 없이 유린 말살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나라의 북과 남은 륭성 발전과 쇠퇴 몰락의 판이한 두 길을 걷고 있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풍습과 도덕, 언어마저 점차 달라져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 무도한 역적의 무리들인 박 정희 도당은 3천만 조선 인민의 일치한 념원인 조국의 자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멸망하여 가는 저들의 잔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밑에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권익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몇 푼의 딸라를 얻어 저들의 추악한 여명을 부지하려고 《한일 회담》의 매국 흥정을 금년 봄에 《기어코 성사》시키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아세아에서 옛 지위를 회복해 보려고 망상하면서 미제

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대한 로골적인 재침략의 길에 들어 서고 있다.

그리 하여 《협조》와 《친선》의 간판 밑에 남조선에 기여 든 일제의 독점 재벌은 이미 남조선의 중요 경제 명맥들을 틀어 쥐기 시작하였으며 이른바 《공동 방위》라는 구실 하에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 침투까지 획책하고 있다.

미국식 문화와 함께 미국식 생활 양식이 침습된 남조선에는 퇴폐적인 일본 렵기 소설과 색정 영화와 부패한 류행가까지 범람하고 있으며 《창가 학회》, 《천리교》와 같은 군국주의적 종교 단체까지 기여 들어와 사상 침략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

결과 오늘 남조선은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2중적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다름 아닌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그들에게 아부 굴종하는 망국 역적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 책동에 있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 인민은 미제와 박 정희 괴뢰 도당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국제 반동의 괴수인 미제와 직접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이 《반공》 선전을 더욱 고창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적들의 사상적 침해의 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

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쉽게 발 붙일 수 있는 안일과 부화, 해이한 현상을 철저히 반대하여 일상 생활을 검박하게 꾸리며 대중 속에서 낡고 부패한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 교양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맑스-레닌주의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 우리 당 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대들을 조국 력사의 유구한 전통과 찬란한 문화 유산과 우리 인민이 간직한 훌륭한 도덕적 풍모로써 교양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특히 1930 년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한 빛나는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남녘 형제들을 돕는 마음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여야 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대렬을 튼튼히 결속하고 4. 19와 6. 3 투쟁과 같은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

이 추켜 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몰아야 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력사적 경험은 인민들이 힘을 합쳐 투쟁하기만 한다면 원쑤들의 그 어떠한 책동도 물리치고 능히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날로 확대 강화되고 남반부에서 반미, 반《정부》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 오를 때에 조국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통일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들은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박 정희 괴뢰 도당을 쓸어 버리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하루 속히 앞당기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 있는 정력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과 남조선에
미친 그 후과

편집 김 형룡, 기술 편성 김 동심, 교정 윤 정해, 장정 김 명자

발행소 조선 로동당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 1동

인쇄 1965년 3월 18일 발행 1965년 4월 30일

ㄱ—430369 (값 40전) 발행 부수 30,000 부